

경북의사회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

2013 Spring Vol.49



경상북도의사회

Gyeongsangbukdo Medical Association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사전등록) 안내

(춘계종합학술대회, 경북의학제, 친선의 밤)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가 오는 2013년 5월 25일(토) ~ 5월 26일(일)까지 양일간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되오니 회원 및 가족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춘계종합학술대회

- **학술대회** : 5월 25일(토) 14:30 ~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
5월 26일(일) 09:00 ~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
-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12평점(토 6평점, 일 6평점)
- **사전등록안내**
- 춘계종합학술대회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회원들의 임상 진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춘계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신청은 본회 홈페이지 (www.igbma.or.kr)를 통해 이루어지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전등록기간 : 2013년 5월 22일(수)까지
(2012년도 의사회비 완납 회원에 한해 등록가능)
- ※ 등록비 : 사전 30,000원, 현장 40,000원 / 본회 회원 기준
- ※ 사전등록계좌 : 대구은행 05-3941-7781 경상북도의사회
- ※ 문의처 : 경상북도의사회 (053) 941-7785

:: 경북의학제

- **경북의학제** : 5월 26일(일) 13:00,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
- **경기종목**
 - 화합한마당 : O×퀴즈, 2인3각, 전략풍선릴레이 등
 - 단체경기 : 탁구, 바둑, 족구, 윷놀이, 골프피칭
 - 번외경기 : 어린이 그림그리기, 시조 및 3행시
- ※ 참석자에게는 다양한 경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 **장기자랑** : 5월 25일(토) 18:00,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
• 회원 및 가족 장기자랑은 사전에 본회로 신청

:: 회원 테니스 대회

- **테니스** : 5월 25일(토) 18:00, 알천체육공원 테니스장(경주 동천동)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물품수집]

- 볼펜, 학용품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 ※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접수처에 전달

:: 춘계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5. 25 (토)	14:00~14:20	등 록		
	14:20~14:30	개 회	경상북도의사회 나득영 학술이사	
		회장인사	경상북도의사회 정능수 회장	
	[Session I]	[좌장] 경상북도의사회 심재철 부회장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병원장	
	1강의	2013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	경상북도 식품의약과 김병국 과장	
	2강의	혈관외과 영역의 최신지견	경북대의전원 외과학교실(혈관외과) 허 승 교수	
	3강의	프로폴폴 등의 안전한 사용	계명대의 내과학교실(소화기내과) 조광범 교수	
	Coffee Break			
	[Session II]	[좌장]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황석순 부의장	황석순내과의원 원장	
	4강의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만성공팔병관리	영남의대 내과학교실(신장내과) 박종원 교수	
5강의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신법률정보	대한의사협회 임병석 법제이사		
6강의	의료현안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협회장		
5. 26 (일)	08:30~09:00	등 록		
	[Session III]	[좌장] 경상북도의사회 김재왕 부회장	김재왕내과의원 원장	
	1강의	다시 공부해야만 하는 폐결핵 치료	동국의대 내과학교실(호흡기내과) 최혜숙 교수	
	2강의	안과 영역의 최신지견-당뇨병 · 고혈압성 망막질환과 라식, 라섹 등	영남의대 안과학교실 장우혁 교수	
	3강의	금연클리닉을 개설하자	계명대의 가정의학교실 김대현 교수	
	Coffee Break			
	[Session IV]	[좌장]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김광인 부의장	안동제통의원 원장	
	4강의	의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두통의 진단 및 치료	대구가톨릭의대 신경과학교실 도진국 교수	
	5강의	진료실에서 만나는 피부질환 완전정복	동국의대 피부과학교실 서무규 교수	
	6강의	한국인의 10대 암	시청각 교육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발행인 정능수
 편집인 김종영
 발행일 2013년 5월 9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702-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gbma
 제작처 선진애드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 (053)555-3336 FAX. (053)556-3273

- 04 **특별기고**
 대화와 협력으로 선진의료제도를 만듭시다! · 김춘운
- 05 **포토뉴스**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이모저모
- 08 **회무소식**
 본회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성황리 개최
 의협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서 2년 연속 모범분회 선정
 다문화 가족과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위한 5개 단체 협약체결
- 15 **회무단신**
- 18 **의료기관 개원현황**
- 20 **제4회 학술상·봉사상 수상자에게 듣는다**
- 22 **공지사항**
 의료기관의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방법 안내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수강 안내
 청구실명제 시행 관련 인력 신고(등록) 안내
 국민 행복과 안전을 위한 「4대 사회약」 체결
- 29 **분회 및 병원소식**
- 32 **의학 및 건강칼럼**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의 관리 · 이동석
- 36 **세무소식**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 백재환
- 38 **회원문예**
 수 필 _ 아버지 우리 아버지 · 홍성철
 장횡거(張橫渠)의 지동설과 천체 인식 · 김종규
 삶의 향기 · 임종식
- 46 **추천도서**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 김대영

주요연중 행사일정

2013. 4. 7	제41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3. 9.	2013년도 회원명부 발간
2013. 4. 28	의협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2013. 10.	제51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13. 5. 9	제49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3. 10.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2013. 5. 25~26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춘계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2013. 11. 3.	201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2013. 5.	2013년도 회원정기신고	2013.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3. 7. 23~28	해외의료봉사(캄보디아 프놈펜)	2014. 1.	시군의회사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
2013. 8.	제50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4. 1.	제52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3. 9. 8	의료봉사 기금마련 골프대회	2014. 2.	2013년도 전체이사회
2013. 9. 28~29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	2014. 3.	2013년도 회무감사
		2014. 3.	본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대화와 협력으로 선진의료제도를 만듭시다!



새봄과 함께 제49호 「경북의사회보」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북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북 의사 회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축사 의뢰를 받고 집무실에 있는 지난 회보를 꺼내어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과 회원분들의 단합과 협력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뜻 깊게 느껴졌습니다. 49호 발간까지 잘 이어온 화합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경북의사회는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의료봉사와 지원사업, 보건의료 정책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끊임없이 지역보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 경북지역의 건강수준과 의료수준은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사회 회원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는 짧은 시간에 큰 발전을 이루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삶과 질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미국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보드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국민 건강수준 부문에서 3위, 진료 수준은 분야에서 5위로 종합평가에서 일본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 이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가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헌신적인 희생과 열정으로 우리나라 의료 발전에 힘을 결집시킨 의사회원 여러분의 덕분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등 급변하는 인구보건학적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

전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정부 출범 후 의료와 복지 부분이 그 어느 때 보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매년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대비 2011년의 진료비가 3.6배 증가하였고, 연평균 12.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11.4% 노인 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33.3%, 만성질환 진료비가 35.5%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비용을 부담할 젊은층은 줄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의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경북도민의 건강한 삶에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경북의사회가 도민 건강에 변함없이 애정과 관심을 쏟아 주시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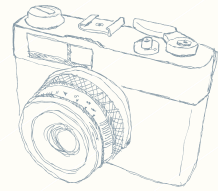
우리 공단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와 협력으로 수가 및 의료정책을 개선하고, 정책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선진의료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도민의 건강한 삶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 경북의사회와 보험자인 공단이 서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하여, 때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일도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49호 경북의사회보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경북의사회보가 다양한 정보로 늘 국민들의 건강에도 이바지 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 봄을 맞이하여 더욱더 전진하고 도약하는 경북의사회가 되고, 회원 여러분들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 춘 운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이모저모



본회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3일(토) 오후 6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1.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식 장면
2. 총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
3. 이석균 윤리위원장의 의사윤리강령 낭독
4. 김광만 본회회장의 개회사
5. 정승수 본회회장의 인사
6. 이철호 의협부협회장의 축사
7. 김관용 경북지사의 축사
8. 송필각 경북도의회 의장의 축사
9.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축사



Photo News



1. 이석균 직전회장과 정만진 직전의장께 감사패 전달
2. 대한의사협회장 공로패 시상 (신명준 · 김종영 회원)
3. 제4회 학술상(문성수 교수)과 봉사상(정만진 원장) 시상
4. 본회 대외 표창

5. 경북지사 표창 (김석곤 · 조성범 · 황석순 회원)
6. 모범분회 표창 (봉화군 · 안동시의사회)
7. 유공회원 표창
8. 모범직원 표창





1

1. 총회를 진행하는 의장단
2. 새로이 선출된 황정한 · 조성범 부회장
3. 이석균 윤리위원장의 인사
4. 대의원의 발언



2



3



4



5

6



5. 감사 및 예결산, 회칙개정 보고
6. 보조대의원들

본회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성황리 개최

금년도 예산 4억9천만 원 확정

제4회 학술상에 문성수 교수, 봉사상에 정만진 회원 수상

본회 임원 증원 등 회칙개정 승인



본회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013년 3월 23일 (토) 오후 6시, 대구그랜드호텔 리젠시홀에서 개최하고 금년도 예산 4억 9천만 원 확정과 본회 임원 증원 등 회칙 개정을 승인하였다.

이날 총회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송필각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철호 의협 부협회장,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신은식 의협 고문, 김종서 대구시의사회장, 차순도 대구경북병원회장, 고순희 경북간호사회장, (주)동원약품 현준호 사장 등 내빈과 대의원 57명(재적 81명)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총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라며 “허심탄회

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회 발전을 위한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능수 본회 회장은 금년도에 두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 경북의사회는 일차의료 기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전 회원이 100%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는 7월 다문화가족 친정국가를 위한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활동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면 그 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디에 있겠냐”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회원들이 없도록 회원들이 ‘경상북도의사회의 뚝심’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013년 3월 23일(토) 오후 6시, 대구그랜드호텔 리젠시홀에서 개최하고 금년도 예산 4억 9천만 원 확정과 본회 임원 증원 등 회칙개정을 승인하였다.

축사에서는 의협 노환규 협회장을 대신해 이철호 부협회장과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 송필갈 도의회 의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본회 이석균 전임 회장과 정만진 전임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으며, 또 제4회 학술상 및 봉사상 시상에서는 학술상에 문성수 교수(동국대 내과학교실)가 발표한 ‘Association of pyruvate dehydrogenase kinase 4 gene polymorphisms with type 2 diabetes and metabolic syndrome’논문이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으며, 봉사상은 정만진(경북북부 제3교도소 부속 의원) 회원이 2003년 5월 이라크 의료봉사단장으로 참여, 2010년 아프리카 의료봉사, 2012년 몽골의료봉사, 한센인 순회진료 등 남다른 봉사활동으로 봉사상을 수상하였으며, 부상으로는 (주)동원약품(회장 현수환)에서 후원하는 금메달이 주어졌다.

이밖에 신명준(포항)·김종영(경산) 회원이 대한의사협회장 표창, 황석순(포항)·조성범(경주)·김석곤(안동) 회원이 경북도지사 표창, 안동시의사회(회장 김석곤)·봉화군의사회(회장 김태경)가 모범분회 표창, 서동권(포항)·이국형(경주)·전우성(구미)·권범찬(영천)·장재혁(경산) 회원이 유공회원 표창, 최성길(청십자내과유외과의원 원무실장), 김오현(포항의료원 총무팀장), 김송희(경주시의사회 간사) 직원이 대대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속개된 2부 본회의에서는 보조위원으로 이재원(포항), 이길호(경주), 전우성(구미), 윤영목(안동) 대의원을 임명하고 감사보고에서 박봉기 감사는 “의사회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차후 예산안 편성시에는 회비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은 경북의사회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해외의료봉사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 했다.

회칙 및 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심의·의결에서는 총 81명 대의원 중 3분의 2이상(54명)이 출석하여 53명이 찬성해 회칙 및 세칙(안),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원 증원(부회장 7명, 이사 30명 이내, 총무이사 신설)에 따른 부회장에 황정환(상주성모병원장)·조성범(경주, 한빛아동병원장) 회원을 선출하였으며, △의장 및 회장 선거(의장은 후보등록을 필한 대의원 중, 회장은 후보등록을 필한 회원 중), △후보자 등록 서류(대의원 10인 이상 추천(복수추천가능)) 등의 내용이 의결됐다.

다음으로 경북의사회 윤리위원회 위원 인준에서는 이석균 전임 회장이 위원장에 김홍태 회원이 부위원장, 김대환·박경욱·김동욱·김장희·권영철·최현욱 회원이 위원으로, 지성구 본회 법제이사가 간사로 선임됐다. 윤리위원회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된다.

회무소식

본회의에서는 마지막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계몽 등 14개 핵심 사업 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 사업계획(안) 및 4억 9천만 원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또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고혈압·당뇨병 시범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제 대책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정액제 상향조정 △토요휴무에 따른 공휴일 가산율 적용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1차의료기관 활성화 △의약분업제도 개선 △차등수가제 폐지 △진정심 구조 개선 및 수가 현실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 점검 시 사전 안내 △과도한 규제 또는 중복처벌 조항 개선 △타지역 출장 건강검진 관련법 개정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

의사면허신고제에 회비납부 의무화 △의사 보건소장 임용 대책 △의협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편성 △의협 종합학술대회 권역별 개최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본회 자체 안건으로 △고령회원에 대한 회비 감면 방안을 1년간 집행부에서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서 논의키로 하였으며, △본회 특별회계 중 특별회비 처리는 회원명부 발간비로 2천만 원을 전용기로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회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결하는 등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서]

- 1) 세입총액 ₩515,887,221원 (자 : 2012. 4. 1)
- 2) 세출총액 ₩515,887,221원 (지 : 2013. 3. 31)

■ 총괄표 (단위 : 원)

세 입 부			
과 목	예산액	결산액	증 △ 감
회 비	340,000,000	381,652,000	△41,652,000
기타수입	48,731,389	57,966,610	△9,235,221
이월금	76,268,611	76,268,611	
합 계	465,000,000	515,887,221	△50,887,221

세 출 부			
과 목	예산액	결산액	증 △ 감
사업비	160,000,000	154,264,910	5,735,090
회의비	18,000,000	17,986,000	14,000
판공비	28,000,000	28,000,000	
경조비	15,000,000	14,950,000	50,000
활동비	44,000,000	44,040,000	△40,000
사무비	123,000,000	123,478,830	△478,830
적립금	20,000,000	20,000,000	
수용비	32,700,000	29,471,968	3,228,032
예비비	24,300,000	5,142,400	19,157,600
이월금		78,553,113	△78,553,113
합 계	465,000,000	515,887,221	△50,887,221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서]

- 1) 세입총액 ₩490,000,000원 (자 : 2013. 4. 1)
- 2) 세출총액 ₩490,000,000원 (지 : 2014. 3. 31)

■ 총괄표 (단위 : 원)

세 입 부			
과 목	2013 예산액	2012 예산액	증 △ 감
회 비	363,000,000	340,000,000	△23,000,000
기타수입	48,446,887	48,731,389	284,502
이월금	78,553,113	76,268,611	△2,284,502
합 계	490,000,000	465,000,000	△25,000,000

세 출 부			
과 목	2013 예산액	2012 예산액	증 △ 감
사업비	175,000,000	160,000,000	△15,000,000
회의비	19,000,000	18,000,000	△1,000,000
판공비	28,000,000	28,000,000	
경조비	15,000,000	15,000,000	
활동비	44,000,000	44,000,000	
사무비	129,650,000	123,000,000	△6,650,000
적립금	20,000,000	20,000,000	
수용비	32,700,000	32,700,000	
예비비	26,650,000	24,300,000	△2,350,000
합 계	490,000,000	465,000,000	△25,000,000

의협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 상정

1. 고혈압·당뇨병 시범사업 및 만성 질환 관리제 대책 건의

고령화와 식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환자의 등록관리 등을 통한 의료기관 관리 강화, 환자의 진료정보 누출 위험 등 1차 의료기관 경영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을 중지 건의

2.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정액제 상향조정 건의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진료비 상한액(15,000원) 초과로 인해 진료비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 및 의료기관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본인부담 정액제를 현실에 맞게 상향(20,000원)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

3. 토요일휴무에 따른 공휴일 가산률 적용 건의

근로기준법을 적용 주 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인건비 직접상승 등 경영에 타격을 받고 있으므로 토요일 진료시 가산규정 확대 적용할 것을 건의

4. 의료전달체계 개선 및 1차의료 기관 활성화 건의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의

5. 의약분업제도 개선 건의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입당시의 명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택분업으로

제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

6. 차등수가제 폐지 건의

잘못된 의약분업제도 시행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재정안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나 재정 안정 이후에도 여전히 폐지가 되지 않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폐지 건의

7. 건정심 구조개선 및 수가 현실화 건의

의료의 주체는 의료수급자인 국민과 의료공급자인 의료인들에게 수가 등을 협상하고 결정하는 구조는 선진국처럼 의사회와 국민 대표들이 동수로 되어야 하고 원가의 70~80% 정도인 의료수가를 현실화하여 줄 것을 건의

8. 건보공단 서버 점검시 사전 안내 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 점검 및 다운시 사전 또는 사후에 장애발생원인 및 정상화 지연사유, 대응책 등을 의료기관에 상세히 안내하여 줄 것을 건의

9. 과도한 규제 또는 중복처벌 조항 개선 건의

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경미한 착오에 의한 청구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벌조항에 따라 각각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중복처벌로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

10. 타지역 출장건강검진 관련법 개정 건의

허술한 출장건강검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지역내에서만 출장건강검진을 허용하고 다른 지역 출장건강검진은 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

11.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건의

한의원에서 간기능검사, 초음파검사 등 불법 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

12. 의사면허신고시 회비납부 의무화 건의

의사회 회무진행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수적인 바, 회원신고(등록)시에 반드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건의

13. 의사 보건소장 임용 대책 건의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보건·위생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 보건소의 보건의료행정에 있어서 의사 보건소장만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에 반드시 의사를 임용토록 건의

14. 의협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건의

대한의사협회의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 편성시 매년 적자발생을 줄이기 위해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신년도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건의

15. 의협 종합학술대회 권역별 개최 건의

매 3년 단위로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제34차 종합학술대회(2014년 6월)를 지방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권역별로 개최할 것을 건의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후원신청 및 후원금 납부방법

- 자동이체 (1구좌 10,000원, 10구좌 이내), 일시납 등
- 입금계좌 : 농협 301-0112-2492-11 / 대구은행 504-10-129035-7 경상북도의사회

◇ 의료봉사단원 모집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회원 (☎ 053-941-7785)



KMA 대한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

• 일시 : 2013년 4월 28일(일) • 장소 : 웨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6층 그랜드볼룸



의협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서 2년 연속 모범분회 선정

“정부 의료악법,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
2013년 예산 ... 실행예산으로 재 편성
공제조합설립을 위한 준비 TF 구성 결의
임원증원 등 정관개정안 부결

대한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8일 (일) 오전 9시부터 웨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는 의료계의 전례없는 관심과 기대속에 지난해 출범한 제37대 집행부의 회무를 평가하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속에 진행됐다.

총회에는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과 의협 명예회장 · 고문,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장을 망라한 의료계 지도자들과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단체 대표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진영 보건복지부장

관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상정한 2013년도 예산안을 부결시키고, 실제 수입을 근거로 한 실행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 추후 승인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재정악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가칭 ‘의협 재정 건전화 특별위원회’를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함께 구성, 운영기로 결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승인거부로 좌초된 의협 공제회의 법인 전환 불발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추후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공제조합 설립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구성 · 운영되어 온 2011년도 회계감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감사보고를 통해 불투명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본회 정능수 회장은 투철한 지도역량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료계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본회가 2년 연속 모범지부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회계 처리가 있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환수 등 후속 조치를 논란 끝에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의했다.

의협 회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가 요구한 임원 수 증원 방안이 담긴 정관개정안은 협회의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위해 집행부가 제안한 '의권정립을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역시 개원 회원만이 아닌 병원급 봉직의를 포함한 전 회원의 참여가 담보된 후에 투쟁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뤄 부결됐다.

이와 함께 총회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협회의 총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보건소의 일반 진료행위 근절, 사무장병원의 불법진료 및 환자유인 행위에 대한 대책, 조세제도 및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등 개원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특히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영역 침범의 정도를 더 해가고 있는 한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각종 약법 대처 및 한방대책 특별기금'을 조성키로 의결했다.

또 수가현실화 및 수가계약제도 개선,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 정액제 상향조정 등 급여기준 개선, 부당 식감 및 환수에 대한 대책 등도 집행부가 힘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의약품 리베이트 쟁별제 개선, 진료실 폭력 근절대책 마련, 자율정화 활동 강화 등도 집행부가 책임을 갖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총회는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올바른 의료환경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회는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본회 정능수 회장은 투철한 지도역량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료계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16개 시도 의사회 중 회비납부율과 적극적인 의협 회무참여 등으로 타 의사회의 귀감이 된 본회가 2년 연속 모범지부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기사 및 사진 제공 : 의협신문)

다문화 가족과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위한 5개 단체 협약체결



본회와 대구광역시의사회, KBS대구방송총국, 대한적십자사 대구시지사, 대한적십자사 경북도지사는 지난 1월 29일(화) 오전 11시, KBS대구방송총국 8층 회의실에서 대구-경북적십자사, KBS대구방송총국과 함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근로자 등 지역 소외계층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한 '함께 사는 세상' 공동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KBS대구총국은 금년도 운영목표를 '건강한 대구경북, 나눔을 함께하는 KBS'로 선정하고 대구·경북지역 시민의 건강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및 시청자사업을 기획 중이며, 그 일환으로 처음 시도되는 '함께 사는 세상' 사업은 새롭게 사회의 구성원이자 한 가족이 된 대구-경북 다문화가족 17000여 세대 및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직접 캠페인 기금을 모금해 의료비 지원을 해 줌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나눔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협약식을 계기로 KBS대구방송총국은 오는 3월부터 홍보 캠페인을 시작하며 기금 모금과 대상자 선정, 협약병원 연계 등을 거쳐 11월까지 실질적인 의료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본회 정능수 회장과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종서 회장, KBS 대구방송총국 박영문 총국장, 대한적십자사 대구시지사 남성희 회장, 대한적십자사 경북도지사 조창현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stanbul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홍보포스터 제작 배부



이stanbul-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23일 동안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이란 주제로 터키 이stanbul 시내 일원에서 아시아·유럽·아메리카 등지에서 50여 개국이 참가하여 전시, 공연, 영상·체험, 특별행사 등 신라와 경주, 경북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할 25개의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본회에서는 엑스포를 통해 원활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의 시발점을 마련하여 우리 문화와 산업의 유럽 진출은 물론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stanbul-경주엑스포의 성공 개최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였다. 홍보포스터는 각시군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제히 배부되어 회원 의료기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상북도를 비롯한 각시군청, 지역보건소, 대한의사협회, 각시도의사회에도 배부되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다.

엑스포 성공 기원 ‘실크로드 탐험대’ 출정식



‘이stanbul-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성공기원 행사 및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 출정식’이 지난 3월

21일(목) 오후 2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을 비롯한 본회 정능수 회장, 지역 기관단체장, 문화·예술·경제단체장, 탐험대원, 시·도민 등 2천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실크로드 탐험대는 이날 경주엑스포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60일간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디고 경주~대구~안동~상주~등 국내 실크로드 주요 거점지를 거쳐 3월 24일 평택항에서 출항식을 갖고 중국 위해항에 도착해 상해~항주~소주~남경~정주~낙양 등 15일간 대장정에 올라 다음달 4월 4일 실크로드 중심도시 시안에 도착한다.

대원들은 탐험구간마다 신라시대 선조들의 발자취를 답사, 체험하고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교류의 궤적들을 찾아 기록·연구하게 된다.

경상북도, 건강행복 추진기획단 발족식



경상북도는 급변하는 보건 의료 시책에 대응하고 자·민·학·관·언론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동참

여하는 ‘경상북도 건강행복 추진기획단’ 발족식을 지난 1월 29일(화) 오후 2시, 경북도청 강당에서 개최하고 ‘건강한 도민, 행복한 경북’ 만들기 환경조성으로 도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이날 발족식에는 경상북도 이인선 정무부지사를 비롯하여 본회 정능수 회장과 보건의료단체장,

경상북도 황병수 보건복지국장, 대구가톨릭의대 박정환 석좌교수와 분과별 위원, 시군보건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건강행복 추진기획단 구성은 공동단장으로 박정환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를 위촉했으며 총괄위원회로 지역보건의료위원회(19명)와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분과위원회(12명, 위원장 박재용 경북대학교 교수), △감염병관리 분과위원회(10명, 위원장 임현술 동국대학교 교수), △건강증진지원 분과위원회(12명, 위원장 이경수 영남대학교 교수), △정신보건지원 분과위원회(10명, 위원장 이종범 영남대학교 교수), △응급의료관리 분과위원회(9명, 위원장 최대해 경북응급의료정보센터장) 총 6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국대학교 의전원 · 의과대학에 장학금 전달



지난 4월 3일(수) 오후 6시부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 출범식(해오름제) 행

사가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조성범 부회장(경주회장), 임현술 의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본회 정능수 회장은 경상북도의사회의 뜻을 모아 지역사회의 훌륭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또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발전을 위하여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능수 회장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앞으로 훌륭한 의료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동국대학교 의전원 · 의과대학 학위수여식



동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원장 임현술)는 지난 2월 18일(월) 오전 10

시 2층 종합강의동에서 2013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제1회 및 의과대학 제22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임현술 원장을 비롯한 본회 정능수 회장, 심재철 동국대경주병원장, 교직원, 졸업생,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재학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김승연 학생에게 대한의사협회장상을 수여하고 사기진작과 더불어 앞날의 의학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격려하였다.

2012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 개최



지난 2013년 2월 23일(토) 오후 6시 대구그랜드호텔 프라자홀에서 2012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도 주요회무보고와 (가)결산보고 및 2013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른 예산안 심의, 회칙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2년도 주요사업 및 회무에 대한 슬라이드 보고와 2012년도 일반회계 (가)결산보고와 각종 특별회계 적립금 (가)결산보고를 상세히 듣고 이의없이 받아들였으며, 또한 2013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안도 통과시켜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본회 회칙 및 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지난 3차례의 회칙개정회의와 제11차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본회 임원 증원(부회장 7명, 이사 30명 이내, 총무이사 신설)과 △회장 임기 명시(당해연도 4월 1일부터 시작) △의장 및 회장 선거 명시(의장은 후보등록을 필한 대의원 중, 회장은 후보등록을 필한 회원 중)와 후보자 등록서류로 대의원 10인 이상 추천(복수추천가능), △기타 지구 수정으로 회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토의사항으로는 2013년도 회원명부 발간과 관련하여 특별회계중 특별회비에서 2천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기로 하였으며, 의사면허신고가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전회원이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각시군의사회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적극 가입하여 정치세력화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2012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의사회장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의료기관 진료차트, X-Ray 필름 무료파쇄



— 보안문서 안전하게 현장처리 —
대구드림텍 ☎ 053-583-1252

제41회 보건의 날 및 제44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개최



지난 4월 4일 (목) 오전 11시부터 '백세건강, 시작은 혈압관리부터'라는 주제로 영천시 실내체육관

에서 경상북도 황병수 보건복지국장과,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 도의원, 정신보건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보건의 날 및 제44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보건의 날(4월 7일) 및 정신건강의 날(4월 4일)이 속해 있는 4월을 '보건의 달'로 정하고 도민의 건강생활실천 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건강증진 기반을

다지고 정신질환 예방 및 편견해소를 위해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정신재활 발표, 영천시 주민들의 풍물놀이, 서라벌어린이집 원생들의 키즈댄스 등 다양한 식전행사를 가졌다. 이어 도민건강증진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보건의 날 노래 순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으며 부대행사로 암예방, 구강관리, 감염병 예방, 운동, 영양식습관, 에이즈예방·홍보, 한방체험 등 다양한 건강증진 체험홍보관이 마련되어 행사장을 찾는 도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보건의 날을 맞아 지역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7개 시·군이 기관표창을, 그동안 도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영천보건소 구현진 소장이 대통령표창, 예천권병원 권정호 이사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본회 김학근 구미시의사회장과 이종형 영천시의사회장 등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오후에는 4개 권역별로 보건의료 담당자들이 함께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마당 체육행사를 열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개최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협의회장 황인방)는 지난 2013년 3월 9일 (토)부터 10일(일)

까지 양일간 본회 주최로 경주에서 개최됐다. 전국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황인방 협의회장(대전회장)을 비롯한 본회 정능수 회장과 각시도의사회장이 참석하여 '의료계가 보는 심사평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능수 회장의 발표가 있었으며, 급여기준과 전산심사, 이의신청 등 절차간소화, 적정성평가 개선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이어 제34차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김동익 의학회장)는 오는 2014년 6월 27일(금)부터 29일(일)까지 코엑스에서 '고령사회와 미래의학'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대한의사협회 제34차 종합학술대회와 관련하여 노환규 회장과 변영우 의협대의원회 의장, 김동익 의학회장이 배석한 가운데 주요경과보고와 개최방향에 대해 보고가 있었으며,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세부(안)에 대한 논의와 각시도의사회 및 유관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고

지방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구미시의사회 고문단과의 간담회 개최



지난 4월 26일 (금) 오후 7시 30분, 다미일식당에서 구미시의사회 고문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김학근 구미시의사회장과 김홍조·김중국·장의현·김동욱·이경수 고문과 임원, 본회 지성구 법제이사, 김병용 정책이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능수 회장은 인사말과 더불어 그간 본회에서 추진한 주요 회무보고와 더불어 최근의료현안으로 의협 공제회 법인화 좌초 위기에 대한 설명,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회원 의사면허신고제, 제6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는 한편, 오는 5월 25일부터 개최되는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와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의사회 회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3년도 본회 해외의료봉사 준비위원회에서 차질없이 준비



본회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구성되어 있는 의료봉사단을 더욱 활성화 하여 소외된 지역민들을 비롯한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하여 해외의료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2013년도 역점추진사업으로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준비회의가 지난 제1차 회의(1/22)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본회 사무처에서 개최되었다. 해외의료봉사는 오는 7월 23일(화)부터 28일(일)까지 6일간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해외의료봉사 참여자 접수와 체계적인 진료를 위해 각각별로 진료 가능한 범위와 방향, 진료에 필요한 기본 장비목록과 진료양식, 의약품 구비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착오없이 진행키로 하였다.

또한 해외의료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는 6월 22일(토)과 7월 13일(토), 2차례의 전체모임을 갖고 해외의료봉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최종점검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2년 12월 ~ 2013년 4월)

포항시

이 춘 화 _ 지수미의원

(791-804) 포항시 북구 두호로 14
T. (054)244-1107 / F.255-2556

추 해 석 _ 드림연합의원

(791-944)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음로 991
T. (054)261-7582 / F.261-7583

경주시

정 성 원 _ 우리들마취통증의학과의원

(780-040) 경주시 동부동 129-1 2층
T. (054)777-3677 / F.777-3678

권 용 채 _ 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780-883)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 174-11
T. (054)751-8286 / F.751-8281

심 성 균 _ 아세아의원

(780-947) 경주시 성동동 399-80 성동시장형상가 201호
T. (054)746-7528 / F.746-7529

안동시

김 학 용 _ 아이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

(760-310) 안동시 옥동 753-6 경북빌딩2층
T. (054)853-5211 / F.852-5211

박 상 우 _ 안동밝은안과의원

(760-170) 안동시 경동로 609 3층
T. (054)853-6500 / F.853-9400

구미시

김 태 균 _ 인동정형외과의원

(730-320) 구미시 인의동 700-2
T. (054)476-7040 / F.476-7042

이 채 용 _ 이너셀자연의원

(730-030) 구미시 1공단로 197-3
파리디아아파트 501동상가 404호
T. (054)462-2570 / F.462-8570

김 식 _ 구미삼우연합정형외과의원

(730-927) 구미시 형곡1동 145-27
T. (054)451-9119 / F.451-9117

김 태 열 _ 봄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730-824) 구미시 옥계동 834-4
4공단메디파크4층
T. (054)476-9500 / F.476-9501

갑을구미병원

(730-350) 구미시 3공단1로 280-3
T. (054)710-6000 / F.710-6010

경산시

김 경 집 _ 제통신경과의원

(712-100) 경산시 백천동 574-1 2층 201호
T. (054)816-8575 / F.812-8575

지 덕 환 _ 상래한이비인후과의원

(712-190) 경산시 사동 666-6
T. (054)292-7599 / F.4292-7598

장 상 수 _ 건강한장연합내과의원

(712-190) 경산시 백자로 60
T. (054)815-8275 / F.816-8276

문경시

정 진 관 _ 한솔비뇨기과의원

(745-887) 문경시 점촌동 265-11
T. (054)556-5123 / F.554-4123

영천시

김 철 규 _ 명성연합의원

(770-802)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95
T. (054)336-8575 / F.336-8576

성주군

백 인 식 _ 성주동산연합외과의원

(719-801)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10-8
T. (054)933-0770 / F.933-0772

청도군

김 중 철 _ 청도고운피부과의원

(714-800)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95
T. (054)372-7785 / F.371-7787

봉화군

배 성 균 _ 동산종합의원

(755-805)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36-35
T. (054)673-6388 / F.673-8830

고령군

주 현 철 _ 열린연합의원

(717-801) 고령군 고령읍 채빈리 447-1 2층
T. (054)955-8575 / F.955-8576

의성군

의성e병원

(769-804)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94
T. (054)832-7000 / F.832-7002

해안병원

(769-804) 의성군 의성읍 북부길 150
T. (054)833-6000 / F.833-6000

본회 정능수 회장,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본회 정능수 회장은 지난 4월 28일, 서울 웨라튼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식에서 투철한 지도역량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료계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임현술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연임**



임현술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지난 3월 1일부로 연임되었다. 임현술 학장은 경상북도 건강행복 추진기획단 지역보건의료위원회 위원과 경상북도 건강행복 추진기획단 감염병관리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어경윤 교수, **대한치매학회장에 선임**



어경윤 교수가 지난 4월 6일 서울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치매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대한치매학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대한치매학회는 치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전문의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최신 지견과 증례 토론등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학회이다.

어경윤 교수는 치매 및 기억장애 질환, 파킨슨병과 운동장애, 두통·뇌졸중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신경과학회·대한치매학회·대한뇌졸중학회·대한노인신경학회·미국신경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사공정규 교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사공정규 교수는 지난 4월 12일(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4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정신질환자의 예방, 치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박래경,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장 취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도약을 이끌 제18대 박래경 병원장이 지난 3월 5일 취임했다. 순천향병원 향설교육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래경 원장은 "지역의료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2의 도약을 위해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박원장은 1987년 순천향의대를 졸업했으며 1995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외과학교실에 부임해 외과 과장, 수련부장, 진료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송달원,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장 취임**



경주동산병원 이비인후과 송달원 교수가 지난 3월 1일자로 제14대 경주동산병원에 취임했다. 송달원 병원장은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신시네티메디칼센터 연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이비인후과 주임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구경북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경주동산병원 이비인후과장으로 재임 중이다.

-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본회 회원 및 지역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소 재 : 제한없음(시, 수필, 의학 및 건강칼럼 등)
- 원고매수 : A4용지 2장 내외(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igbma.or.kr)의 회원마당
→ 회보투고란에 게재(상시제출가능)
- 기타사항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의사회보 편집방침에 따라 취지에 맞도록 약간의 원고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4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수상자에게 듣는다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은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회원 중에서 의학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동일한 논문으로 타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 제외)으로, 봉사상은 의사단체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진료, 교육, 문화, 육영, 체육, 예술,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사업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펴 지역 주민과 관련기관·단체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해 심사후 선정하여 본회 정기대 의원총회에서 수여되며, 부상으로는 상패와 부상(각 금1명)이 주어진다.



학술상 수상소감

우선 소중한 상을 마련해 주신 경상북도의사회와 동원약품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진료와 연구를 하시고 계신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을 뒤로하고 아직 연구로 보서는 미완의 제가 큰 상을 받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앞섭니다.

최근 수도권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처럼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 및 연구비도 몇 개의 대형 병원에 집중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경상북도의사회에서 수여하는 학술상이 그 어떤 상보다도 더 값지게 여겨집니다. 이제 4회째인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수한 지역 연구자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더 값진 상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술상은 후진을 양성하고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을 동경하여 이제 막 그 길에 들어선 초심자 측에 속하는 저로서는 한 번 더 심기일전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는 PDK4 유전자 다형성과 제2형 당뇨병과 대사성 증후군의 관련성을 살펴본 것입니다. PDK4라는 유전자는 포도당과 지방 대사에 관계하는 중요한 단백질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해당과정을 거쳐 TCA 회로로 들어가는 것을 매개하는 PDC라는 효소의 활성을 조절합니다. 최근 당뇨병, 지방간과 같은 대사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의 표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PDK4의 유전자 다형성이 실제로 제2형 당뇨병 또는 대사 증후군 환자에서 차이가 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651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와 350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PDK4 유전자의 대표적인 4 곳의 유전자 다형성 분석한 결과 각각의 유전자 다형성은 제2형 당뇨병 또는 대사 증후군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일배체형에서는 제2형 당뇨병과의 연관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최근 제2형 당뇨병 또는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굴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뇨병 합병증 및 비만의 병태생리에 관심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연구가 연구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약하지만 실제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제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지원을 해주신 동국대학교와 경북대학교병원 교수님들과 사랑하는 저의 가족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교수 **문 성 수**

의사는 봉사하기 좋은 직업입니다.

우선 경북의사회 의료봉사상을 주신 경북의사회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을 받고 보니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내가 상을 받을 만큼의 봉사를 하였던가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제가 큰 봉사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의사로서 생활 속의 봉사를 생각하며 조금은 변형된 의사의 삶을 살아 왔고, 25년간의 의사회 지도자로 살아온 것에 대한 격려의 뜻이 포함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 또는 이태석 신부님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이것을 실천하면 자신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봉사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즐거운 법입니다.

불경에 재산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무재칠시(武財七施)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다운 얼굴로 대하는 화안시(和顔施), 칭찬과 사랑의 말을 뜻하는 언시(言施),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심시(心施), 호의를 담은 눈빛의 안시(眼施), 몸으로 베푸는(짐 들어주기) 신시(身施), 자리를 양보하는 좌시(座施), 상대의 마음을 관찰하여 알아서 도와주는 찰시(察施)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들은 무재칠시 이외에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의(醫)를 베풀 수 있고(醫施), 작은 재시(財施)도 베풀 수 있으니 의사만큼 봉사하기 좋은 직업도 없을 듯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지만 남에게 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려는 자세, 이것이 생활 속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봉사에 전념하기는 힘들어도 직업을 통한 봉사, 봉사의 의미가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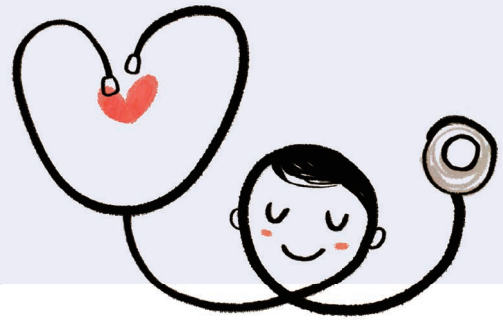
의료계의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머릿속에 “봉사”라는 말을 떠올리며 생활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침 경북의사회에서도 봉사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게 되어 마음 든든합니다. 우리 회원 모두 작은 봉사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봉사,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부속의원 원장 정 만 진



- 영천 로타리 클럽 회장(2001년)
- 범의료계 이라크 의료봉사단(2003년 5월)
- 울릉군보건의료원장(2004년 6월부터 4년 1개월)
- 아프리카 의료봉사(2010년)
- 몽골의료봉사(2012년)
- 의사협회 한센인 의료봉사(2009)
- 경북북부제3교도소 부속의원장 (201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방법 안내



**의료기관
명칭 사용**

가. 의료기관 종별 명칭 사용(의료법 제42조제1항)

- 1) 원칙 :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2) 위반시 처벌 : 의료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제90조)

나. 의료기관 명칭 표시방법(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

- 1) 고유명칭의 표시
 -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인다.
(예외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은 각각 상급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예, 향문, 척추, 의료센터, Clinic, Hospital 등)

• 의료기관 명칭표시 구체적 사례

인정여부	고유명칭	+	종별명칭(의료기관)
인정	· 개설자 이름(단, 질환명, 진료과목 명과 혼돈이 없는 경우) · 연합 · 성모, 성심, 세브란스 · 자연미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불인정	· 신의학, 신의료기술 · 통합의학, 대체의학 · 소아, 아동, 향문(향운), 척추(전문) · 호스피스, 재활 · 소화, 면역, 통증, 비만 · TMJ(턱두하악관절), 레이저		· clinic · Medica · hospital · 의료센터 · 종합진료 · 의료원

• 출처 : 보건복지부, 2012 의료기관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제80쪽

2) 전문과목의 삽입

- 병원 · 한방병원 · 치과병원 · 의원 · 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부속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 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 : 시정명령

- 1) 의료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표시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에 처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 2)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따른다.

진료과목의 표시

가. 진료과목의 표시방법(의료법 제43조제5항)

- 1)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i) 종합병원 : ii) 및 iii)의 진료과목
- ii) 병원이나 의원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 iii) 「치과의사전문회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 치과병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
- iv)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 v) 요양병원 : ii) 및 iv)의 진료과목

- 2)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 3) 위반시 제재 : 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의료법 제92조제3항)
 - ※ 특칙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 : 시정명령

- 1) 의료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에 처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2) 시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따른다.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 1)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호)

- 의료기관의 명칭(한글로 표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 전화번호

-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받은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만 해당한다)

- 2)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로, 전문의는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 외에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과목의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전문주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 3)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글자 면적의 1/2을 의미함).
- 4) 전문과목의 표시
 -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의료법 제77조제2항).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반의인 경우 설령 고용의가 전문이라도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다.
 - 동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 내과 전문의 홍길동)은 ‘홍길동내과의원’이라고 표시가능하나, ‘홍길동피부과의원’ 또는 ‘홍길동내과피부과의원’으로 표시한 경우)

• ‘외과전문’인 홍길동이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사례

[예시]	[가부]	[이유]
홍길동의원 진료과목 : 외과, 내과, 피부과	○	· 반드시 진료과목을 표시할 필요 없음
홍길동외과의원 진료과목 : 외과, 내과, 피부과	○	· 개설자 대표 전문과목 표시 가능
홍길동외과의원 하지정맥류전문	×	· 하지정맥류 등 세부질환명 표시 금지
홍길동항문의원 진료과목 : 치질	×	· 질환명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홍길동외과클리닉 진료과목 : 외과	×	· 의료기관 종별명칭(의원) 사용 · 클리닉 사용 금지
홍길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 외과, 내과, 피부과	×	· 다른 전문과목 표시 금지

참조 : 보건복지부, 2012 의료기관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령 제80쪽



1) 내과 전문의 홍길동은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을 ‘홍길동내과의원’이라고 표시하고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으로 신경과, 정신과, 외과, 피부과 등 표시 및 진료가 가능하다. 참고로 특허법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상 다양한 진료과목 표시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1인 의사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법률상 전문의와 일반의의 진료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특허법원 2004. 7. 9. 선고 2004허660 판결 참조)고 판결한 바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수강 안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교육을 구축하였으며, 환경부로부터 2013년도 의료폐기물 교육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2013년 의료폐기물배출자 온라인 법정교육 실시하오니 대상 회원께서는 동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정명 및 대상자

- 과정명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대상자 : 1)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병·의원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2)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 교육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담당자로 지정된 자 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교육 사이트 :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edu.kma.org>)

■ 교육일정

- 수강신청 및 수강기간 : 4월 1일 ~ 7월 31일
- 추가 수강신청 및 수강기간 : 9월 2일 ~ 10월 31일
- 수료확인 : 수강기간내에 4차시 과정 수강완료 ⇒ e-test 응시 ⇒ 수료확인 및 수료증발급

- 교육수수료 : 대한의사협회 부담

■ 수강절차

※ 학습간 유의사항

- 수강기간내에 4차시 100% 이상 필히 수강하여야 정상적인 수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 차시별로 배정된 "학습시간" 이상 수강해야 함)
- 수강기간내에 수료완료 되지 않을 경우 미수로 처리됩니다.
- 의료폐기물교육은 법정교육으로서 연수평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 회원가입

1) KMA 교육센터 접속(<http://edu.kma.org>) ⇒ 회원가입 신청

2) 회원정보 입력

※ 의료폐기물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의사회원이나 의료기관 직원 모두 [회원분류]에서 '일반'을 선택하고 [회원구분]에서 '의료폐기물교육'을 선택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여 'KMA 교육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의사회원들도 '의료폐기물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회원분류]에서 '일반'으로 선택하고 [회원구분]에서는 '의료폐기물교육'을 선택하여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수료증 발급을 위해 '소속 의료기관주소', '직장명(의료기관명)',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직장명에 해당 의료기관명을 명시해야 수료증이 올바르게 발급됩니다.)

● 수강

1) 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로그인



- 2) 연수교육 ⇒ 사이버연수교육 메뉴 클릭
- 3)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과정명 클릭
- 4) 수강하기 버튼 클릭
- 5) 교육신청 완료 ⇒ '학습페이지 이동'버튼 클릭
- 6) 마이페이지 ⇒ 사이버연수교육 학습내역 메뉴 클릭
- 7)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과정명 클릭
- 8) 학습하기 버튼 클릭
- 9) 4차시 과정 수강

※ 학습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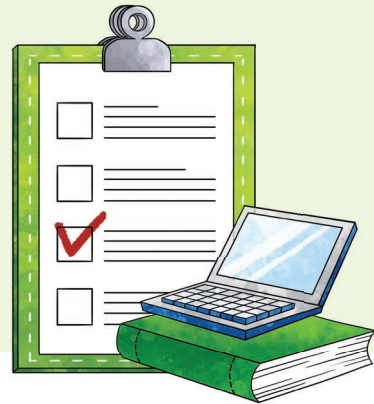
차시	목차명
1차시	폐기물정책 및 관련법령의 이해
2차시	의료폐기물 관리실무
3차시	올바로 시스템 소개
4차시	RFD 의료폐기물 시스템 소개

● 수료확인 및 수료증 발급

- 수강기간내에 4차시 과정 수강완료 ⇒ e-test 응시 ⇒ 수료확인 및 수료증 발급

※ 수료증은 마이페이지 ⇒ 연수교육 이수내역확인 ⇒ 이수확인서 발급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실명제 시행 관련 인력 신고(등록) 안내



청구방법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할 때 2013년 7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의(약)사 면허정보(면허종류,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개정 고시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미등록된 의(약)사 인력은 모두 신고(등록)하여야 함.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1호(2013. 3. 2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청구개선 관련 의(약)사 인력 신고 대상 및 내용

- 신고 대상
 - 요양급여비용청구시 명세서에 면허정보가 기재되는 의(약)사
 - 근무형태에 따라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 모두 적용
 - 일반의, 전문의 및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 및 대체근무 의(약)사 포함
- 신고내용
 - 미신고 인력은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2013. 7. 1.) 이전에 모두 신고
 - 양급여비용청구 전에 명세서에 면허사항이 기재되는 대상 인력을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신고해야함
 - 선 입사기관의 퇴사지연신고로 인한 입·퇴사 중복 건
 - 인력신고는 중복등록이 불가능(기타인력은 제외)하므로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 처리된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함
 - ※ 기타인력은 상근, 비상근을 제외한 모든 근무형태를 포함
 - 양·한방 복수면허자 신고(등록)
 -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 면허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

청구방법개정 관련 의(약)사 인력 신고 방법

- 의(약)사 신고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 현황신고 → 인력신고 → 의(약)사신고 메뉴에서 등록
 - ※ 청구방법 고시개정 관련 콜센터(문의) : ☎ 1644-2000
 -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7시(월~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고시개정에 따른 인력신고 Q & A

Q 청구방법 고시개정 신고대상은 누구인가요?

A 요양기관의 의사 또는 약사입니다.

- 의과,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투약하는 약사
- ※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 모두 적용

Q 신고대상에 전공의도 포함되나요?

A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일반수련의, 전문수련의)는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Q 대체근무 시 모든 의·약사가 신고대상인가요?

A 요양기관에서 대체근무를 하는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Q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이전 미신고 인력의 처리방법은?

A 환자를 진료하고 있거나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있는 미신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가 있다면 청구방법 고시개정 시행일(2013. 7. 1.) 이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Q 복수면허자는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양방과 한방 또는 양방의 복수면허를 가진 자가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 종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이전 요양기관에서 퇴사처리가 늦어질 경우 새로 입사한 요양기관에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인력신고는 중복등록이 불가능(기타인력은 제외)하므로 이전 요양기관에서 먼저 퇴사 처리된 후 신규 입사 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기타인력은 상근, 비상근을 제외한 모든 근무형태를 포함.

Q 위의 사항들은 심사평가원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A 위의 사항들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군구(보건소)에 신고대상이 된다면 시군구(보건소)로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Q 인력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biz.hira.or.kr>)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병 원 053-750-9390
요양병원 053-750-939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053-750-9392

국민 행복과 안전을 위한

『4대 사회악』 척결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 여성 등 대상으로 가해지는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 및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

112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으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으로 피해대상은 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나타남

112신고 / 안전Dream 포털 / 여성긴급전화 1366

원스톱·해바라기 센터 054-245-5933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학교폭력

-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면 그 자체가 '학교폭력'

국번없이 117전화 / 안전드림 (www.safe182.go.kr)

문자 (#0117) / 이메일, SNS신고

불량식품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듭시다.

☎ 112 신고시 최대 2,0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경북지방경찰청



경상북도 의사회
Gyeongsangbukdo Medical Association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제7회 포항시 의사의 날 성료



포항시의사회(회장 신명준)는 지난 4월 14일(일) 오전 10시 30분, 흥해실내체육관에서 포항시의사회 신명준 회장을 비롯한 본회 정능수 회장,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광만 본회 의장, 신은식 의협 고문 등 많은 회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포항시 의사의 날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날 의사의 날 행사는 OX퀴즈, 돼지물미, 캥거루릴레이, 미니골프, 족구, 탁구, 윷놀이로 구성된 명랑운동회와 풍선 서바이벌, 단체줄넘기 등 화합한마당 행사로 다채롭게 진행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주시의사회

2013년 춘계아유회 개최



경주시의사회(회장 조성범)는 지난 4월 6일(토) 오후 4시, 비가 오는 곳은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국형 산행대장의 인솔로 포석정-부흥사-늬비봉 5층 석탑의 코스로 이루어진 산행으로 춘계아유회를 개최하였다. 부흥사와 늬비봉 5층 석탑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와 황금알생오리식당에서 많은 회원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저녁식사를 겸한 단합행사를 시작하였으며, 추첨을 통해 회원 4명에게는 상품권, 대상으로 이종현 원장(서울내과의원)이 자전거를 받는 행운을 얻었다.

안동시의사회

제2차 확대이사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석곤)는 지난 4월 18일(목) 저녁 7시, 대번식당에서 제2차 확대이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최중두·최유근·신현수 고문을 비롯한 많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참가독려와 더불어 선수선발 논의, 안동시의사회 친선골프대회 준비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미시의사회

구미·선산보건소장과 간담회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김학근)는 지난 3월 21일(목) 오후 7시 30분, 대해일식에서 구미·선산보건소 구건희 소장과 의약담당계장 및 의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현안과

논의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중점 논의를 하였다. 이날 김학근 회장은 보건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의 그동안 노고를 격려했으며, 의료현안에 대해 다같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산시의사회

경산시장 방문 및 장학금 기탁



경산시의사회(회장 김중영)는 지난 2월 21일(목) 박일영 고문, 김영태 공보이사와 함께 최영조 경산시장을 방문하고 의료현안 논의 및 상호 원활한 업무 협조를 구하는 한편, 경산시장학회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하였다.

회원친선 골프대회 개최



지난 4월 7일(일) 오전 8시, 청도 그레이스 C.C에서 경산시의사회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골프대회는 본회 정능수 회장과 김중영 경산시의사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페리오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위해 개최되었다. 정능수 회장은 인사말과 더불어 최근의료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의사회 회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메탈 요관 스텐트 삽입술 성공

동국대학교경주병원(병원장 심재철) 비뇨기과 김기호·서영진·이경섭 교수는 암이나 기타 양성질환으로 요관협착이 발생해 평생 촉복부 스텐트 삽입 및 요관부목으로 불편을 겪는 환자에게 최근 개발돼 시술 중인 메탈 요관 삽입술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난치성 요관협착 환자의 경우 요관에 대한 시술이 어렵고 기존의 요관부목삽입술이나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받은 환자라 하더라도 평생동안 3개월마다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삶의 질이 매우 나쁘다. 메탈 요관 삽입술은 방광내시경을 통해서 난치성 요관협착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으며, 한번 시행으로 평생동안 요관협착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간편한 시술이다. 메탈 요관은 요관협착 부위에서 풍선처럼 퍼지고 체온에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난치성 요관협착 환자에게 매우 유용한 시술이다. 해외 임상시험에 따르면 양성이나 암 등으로 인한 요관협착 환자에게 시술해 2년 동안 합병증 없이 매우 높은 성공률 및 환자 만족도를 보고하고 있다.

울진군민 대상 전립선 무료진료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비뇨기과는 지난 3월 23일 울진군 청소년수련관에서 한국전립선관리협회, 울진군보건소와 함께 전립선 건강강좌 및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700명이 넘는 울진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남성 암 증가율 1위인 전립선암 및 전립선질환으로 고통 받는 주

민들에게 예방 및 관리법에 관해 알아보는 자리가 됐다.

이날 무료진료에 앞서 비뇨기와 이경섭 교수는 '전립선비대증과 전립선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료법, 관리방법과 예방'에 대해 건강강좌를 실시했으며, 특히 이날 무료 진료 활동에서는 국제전립선증상점수, 전립선특이항원, 경직장전립선초음파촬영 등을 하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8명의 의료진이 전립선 질환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져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심장혈관내과, 신장동맥 신경차단술 성공



동국대경주병원 심장혈관내과 정진욱·나득영 교수팀은 저항성고혈압(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환자에게 신장동맥 신경차단술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난치성 고혈압 신장신경차단술은 혈압 조절과 관련된 중추 교감신경계 중 하나인 신장과 뇌를 잇는 '신장신경'을 고주파 충격을 이용해 차단, 혈압을 올리는 교감신경계 작용을 감소시켜 혈압을 조절하는 치료법이다. 시타구니로 고주파를 발생하는 장치가 연결된 카테터를 넣어 신장 동맥에 그 에너지를 전달해 혈관 외벽에 있는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부분마취 후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간편한 시술이다.

내시경·복강경 '한번에' 위종양 제거술 성공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소화기내과 박정배 교수와

외과 하동엽 교수팀이 내시경과 복강경을 동시에 사용해 위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성공했다고 밝혔다. 일명 하이브리드 노트(Hybrid NOTES)로 불리는 이 수술은 내시경으로 병변 주위를 절제한 뒤 내시경과 복강경을 동시에 사용해 위를 최소한으로 절제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라 위를 최대한 보존하게 되며 개복하지 않아 수술 후 흉터가 거의 없다. 또한 위암 절제술의 경우 위의 상당부분이나 전부를 제거해 조금씩 음식을 섭취해야했으나, 이 수술기법으로 시술한 환자에게는 식이조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속도가 빠르게 나타나 입원 및 회복기간도 짧다.

안동병원

'닥터헬기' 7월부터 운항



안동병원(병원장 김효운)은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Air ambulance)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3월 14일(목) 안동병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안동병원과 원주기독병원에 도입되는 닥터헬기 운영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항공, 경북도, 강원도, 각 자치단체, 병원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응급의료전용헬기 도입일정과 기관별 추진사항, 자치단체별 인계점 선정 등을 논의하고, 안동병원의 헬리포트장, 지상계류장, 운항통제실 등을 건학했다. 닥터헬기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하고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하는 응급전용헬기로 안동병원에 도입될 닥터헬기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운항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의료관광 우수병원 지정

경상북도가 의료관광사업 활성을 위해 도내 5개병원을 의료관광 우수병원으로 지정



했다. 5개병원은 안동병원, 동국대경주병원, 구미강동병원, 경산중앙병원, 꽃마을경주한방병원으로 앞으로 경북도와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지난 5월 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의료관광 우수병원 지정식에는 김관용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도청주무관계자, 5개병원 대표가 참가해 경북의 의료관광을 이끌어 갈 우수병원에 대해 지정서를 전달하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입사 일년 맞은 간호사, 초심 그대로 다부진 포부 밝혀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병원장 박래경) 간호부가 지난 3월 19일(화), 입사 첫돌을 맞은 간호사들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병원 강당에서 열린 첫돌 잔치는 간호 현장에서 웃음과 희망을 주는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잘 소화해 내고 있는 2012년 입사 간호사 35명의 근무 1년을 축하하고 이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소통으로 힐링하라' 시간을 통해 간호사들은 1년간의 병원 생활을 회상하며 나의 일과 희망 등을 고민해 보며 자신의 비전을 스케치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수교육기관 해당학교에서 장애아동 무료검진

지난 4월 3일(수), 특수교육기관인 해당학교(학교장 홍기표)를 찾아 따스한 사랑나누기



를 실천했다. 장애 아동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1996년부터 19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해당 학교 무료검진은 발달장애, 지적장애 등의 학생들에게 몸이 건강하고 안정된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날 구미해당학교를 방문한 검진팀은 200여명의 장애아를 대상으로 청력, 시력, 구강, 혈액, 심전도, 엑스레이검사, 의사진료 등의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의료진도 의사5명을 포함해 간호사, 방사선사, 병리사 등 30여명이 동원됐다.

차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

9년 연속 최우수 응급의료기관 선정
구미차병원(병원장 조수호) 응급의료센터가 9년 연속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 1일~2012년 6월 30일까지 전국 21개 권역응급의료기관, 2개 전문센터, 114개 지역 응급의료센터, 296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

설·인력·장비·구조 등 법적 기준 충족여부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2개 영역 79개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구미차병원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전국의 유일한 병원이 됐다.

지역최초 신장신경차단술 치료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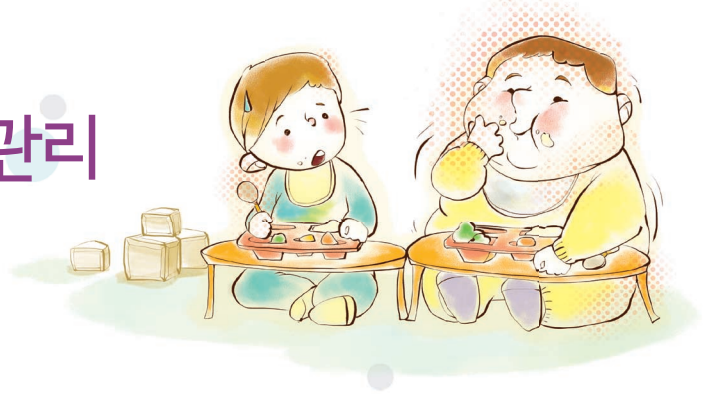
구미차병원 순환기내과 이현상 교수팀은 난치성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을 낮추는 최신 비수술적요법인 '난치성 고혈압 신장 신경 차단술'을 지역 최초로 시술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장신경 차단술'은 최근 독일, 호주 등지에서 성공한 치료법으로 우리나라는 일부 대학병원에서 최근 시술해 성공한 사례가 발표되고 있다. 난치성 고혈압 환자에게 고주파 발생장치가 연결된 카테터를 서혜부(사타구니)로 넣어 대동맥을 통해, 신장 동맥으로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 혈관 외벽에 분포된 교감신경을 차단해 적정 혈압을 유지하게 하는 원리다.

2013 대구·경북 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

- 일 시 : 2013년 7월 7일(일) 08:00~14:50
- 장 소 : 호철인터불고대구(만촌동) 컨벤션홀
- 연수평점 : 의협 4점 / 내과학회 평생교육평점 4점 / 대한위장내시경학회평점 0.5점
- 사전등록마감일 : 2013년 7월 3일 (수) 까지 (등록마감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등록신청문의(준비사무국) : Tel 070-7434-2375 Fax 0505-115-0497 E-mail : union0614@gmail.com
(준비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사전등록신청서를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8:00-08:50	등록	
08:50-09:00	인사말(개회사/축사)	회 장 이성구
09:00-10:30	Session1	좌 장 이원표 / 박진석
강의	09:00 ~ 09:30 골다공증 진단과 치료의 최신경향	전윤경 교수 (부산의대 내분비내과)
	09:30 ~ 10:00 협심증 환자의 올바른 치료	허종원 교수 (연세의대 순환기내과)
	10:00 ~ 10:30 개원의가 꼭 알아야 할 심전도 소견	이훈순 교수 (국립중앙의료원 순환기내과)
10:30-11:00	coffee break / 부스참관	
11:00-12:00	Session2	좌 장 조동규 / 정문관
강의	11:00-11:30 GFR에 따른 만성 콩팥병 환자의 단계별 관리방침	최규복 교수 (이화대의대 신장내과)
	11:30-12:00 위암, 당신도 놓칠 수 있다	김상균 교수 (서울의대 소화기내과)
12:00-13:00	Lunch	
13:00-13:20	음악의 향기와 함께	
13:20-14:50	Session3	좌 장 김종서 / 김재왕
강의	13:20-13:50 반복되는 구강궤양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윤경 교수 (한양의대 류마티스내과)
	13:50-14:20 만성B형간염 치료의 완전정복	김도영 교수 (연세의대 소화기내과)
	14:20-14:50 흥부 X선 사진에서 놓쳤던 폐암의 다양한 증례들	이기남 교수 (동아대의대 영상의학과)
14:50~	폐회사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의 관리



대사증후군은 1988년 Reaven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술되었으며 복부비만,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을 의미한다. 특히 대사증후군은 성인에서 당뇨병,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강력한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소아청소년에서도 비만이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빈도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의 비만 빈도는 약 10% 정도이며 이중 약 20-40%가 대사증후군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비만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조기 발견, 진단 및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소아청소년의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아직까지 소아청소년기의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은 완전하게 정립되어있지 않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준은 Th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s Adult Treatment Panel III report (APT III)를 많이 사용하고, 소아청소년에서는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기준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Table 1,2).

Table 1. ATP III Clinical Identification of the Metabolic Syndrome.

- Waist circumference: ≥ 102 cm in men, ≥ 88 cm in women*
- Triglyceride: ≥ 150 mg/dL
- HDL-C: < 40 mg/dL in men, < 50 mg/dL in women
- Blood pressure: $\geq 130/85$ mmHg
- Fasting glucose: ≥ 110 mg/dL

*In Asian: ≥ 90 cm in men, ≥ 80 cm in women

MS is defined as having 3 or more of the following 5 factors

Table 2.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Definition of Metabolic Syndrom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Age 6 to < 10 years
- 1) Obesity: ≥ 90 th percentile as assessed by waist circumference
- 2) Metabolic syndrome cannot be diagnosed, but further measurements should be made



이동석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 Age 10 to <16 years
 - 1) Obesity: ≥ 90 th percentile as assessed by waist circumference
 - 2) Triglycerides: ≥ 150 mg/dL
 - 3) HDL-cholesterol: < 40 mg/dL
 - 4) BP: $\geq 130/85$ mmHg
 - 5) Fast glucose ≥ 100 mg/dL
- Age >16 years (Use existing IDF criteria for adults)
 - 1) Obesity : Waist circumference ≥ 94 cm for males and ≥ 80 cm for females
 - 2) Triglycerides: ≥ 150 mg/dL or specific treatment for high triglycerides
 - 3) HDL-cholesterol: < 40 mg/dL in males and < 50 mg/dL in females or specific treatment for low HDL
 - 4) BP: $\geq 130/85$ mmHg or treatment of previously diagnosed hypertension
 - 5) Fasting Glucose: ≥ 100 mg/dL or known type 2 diabetes mellitus

MS is defined as having abdominal obesity plus two or more of other four factors

[소아청소년 대사증후군의 관리]

1) 복부비만

소아청소년기의 복부비만은 성인에서 당뇨병과 죽상경화 심질환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기 부터 비만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복부비만의 가장 중요한 관리로는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다(Fig.1). 식이요법은 나이에 맞게 칼로리는 줄이면서, 성장에 필요한 필수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잘 조화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체중은 매달 1-2kg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정기적인 운동(4-5회/주)은 복부비만의 감소에 필수적이나, 칼로리 제한 없이는 그 효과가 불투명하다. 운동은 강도 높은 유산소운동(60분 이상/일)이 근력운동에 비해 복부비만 감소에 효과적이나, 소아에서 지속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짧은 시간(수분)의 강도 높은 운동도 에너지 저장을 예방하고 체형 균형에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성인에서 사용되는 약물은 소아에서의 안전성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며 치료 중에만 일시적 효과를 보여 약물 치료에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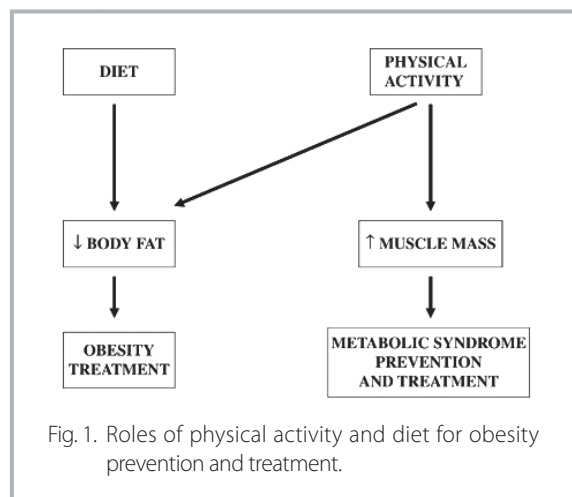


Fig. 1. Roles of physical activity and diet for obesity prevention and treatment.

2) 지질 이상

동반되는 지질이상으로는 고 중성지방(TG), 저 HDL 콜레스테롤(HDL-C) 혈증이 가장 대표적이며 이들은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비만과 인슐린저항성은 TG가 풍부한 VLDL의 생산 증가로 죽상동맥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킨다. 인슐린저항 상태에서는 lipoprotein lipase 활동의 장애로 더욱더 TG의 증가와 HDL-C의 감소를 유발한다.

지질장애 치료의 시작은 체중조절과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운동은 혈중 TG의 감소와 HDL-C의 생성을 증가시킨다. 소아청소년기에서 생활 습관의 개선은 그 효과에 대해 논란이 많다. 특히 식이요법과 더불어 운동 프로그램이 지질대사 이상에 효과적이다. 체중조절시 식단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저지방식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섬유질은 풍부하게 함유되어야 한다.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식품이나 스낵 등은 반드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음식조절 및 운동요법에도 불구하고 지질이상과 고중성지방혈증이 지속시 약물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오메가-3은 성인에서 효과적으로 TG의 감소와 HDL-C의 증가를 보여 주었으며 최근 소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특별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순도가 높고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의 선택이 필요하다. 성인에서 지질이상시 흔히 사용되는 statin의 소아청소년기 사용에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 적어도 10세 이후 LDL-C가 지속적으로 190 mg/dL 이상이거나 160 mg/dL 미만이지만 심혈관질환의 가족력이나 다른 위험인자(HDL-C < 40 mg/dL, 담배, 고혈압, 비만 혹은 인슐린저항성)를 동반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3) 당 대사 장애

당 대사 장애는 공복 혈당 장애(impaired fasting glucose), 내당능 장애(impaired glucose tolerance)로 나타나며 소아청소년에서 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식습관의 변화, 활동의 증가와 같은 생활습관의 개선은 당 대사 장애의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미와 같이 완전히 정제되지 않은 곡물을 섭취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체중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식후 고혈당을 예방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어준다. 신선한 과일을 많이 먹게 하고 설탕의 함량이 높은 음료수 등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운동과 같은 활동력의 증가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제2형 당뇨병의 예방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운동은 자유롭게 하기보다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해 규칙적이고 적절한 강도로 시행하는 것이 더욱 더 효과적이다.

당 대사 장애로 인한 제2형 당뇨병의 예방을 위한 약물 치료로는 metformin이 가장 효과적이다. 비만이나 고인슐린 혈증을 가진 소아에서 metformin은 체중을 감소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며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에는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의 개선과 식습관 개선이 가장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약물요법도 보조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고혈압

비만 아동에서 고혈압의 빈도는 10%정도이며 대사증후군과 동반된 고혈압의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고혈압의 치료를 위해서는 체중의 감량이 효과적이며 10%정도의 체질량지수의 감소는 10 mmHg 정도의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식단에서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저지방식을 주로하고 소금의 섭취를 줄인다. 음식의 조절 외에도 적절한 운동요법의 병행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생활습관의 변화에도 변화가 없으며 약물요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약제로는 angiotensin-converting-enzyme inhibitors (ACEIs), angiotensin-receptor blockers (ARBs), calcium channel blockers (CCBs), beta-blocking agents 등이 있다. 특히 지질이상, 당뇨를 동반한 고혈압시 ACEIs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론]

아직까지 소아청소년에서 대사증후군은 완전히 정립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대사증후군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성장에 따라 당뇨병, 심혈관질환으로의 진행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치료에는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의 개선과 식습관 개선이 가장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약물요법도 보조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Pacifico L, Anania C, Martino F, Poggiogalle E, Chiarelli F, Arca M, Chiesa C. Management of metabolic syndrom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utr Metab Cardiovasc Dis.* 2011 Jun;21(6):455-66.
2. Cook S, Kavey RE. Dyslipidemia and pediatric obesity. *Pediatr Clin North Am.* 2011 Dec;58(6):1363-73.
3. Kim G, Caprio S. Diabetes and insulin resistance in pediatric obesity. *Pediatr Clin North Am.* 2011 Dec;58(6):1355-61.
4. D'Adamo E, Santoro N, Caprio S. Metabolic syndrome in pediatrics: old concepts revised, new concepts discussed. *Pediatr Clin North Am.* 2011 Oct;58(5):1241-55.
5. Brambilla P, Pozzobon G, Pietrobelli A. Physical activity as the main therapeutic tool for metabolic syndrome in childhood. *Int J Obes (Lond).* 2011 Jan;35(1):16-28.
6. Weiss R. Metabolic syndrome in childhood - causes and effects. *Endocr Dev.* 2010;19:62-72.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세무법인 누리
고문세무사 백 재 환

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 행복의 달입니다. 한편으로는 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이라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의 안내문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13년도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금요일)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로업의 경우 2012년도 1년간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는 7월 1일(월요일)까지 신고 ·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신고하여야 성실 신고사업자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피해 나갈 수 있느냐”입니다. 지난해 가을호에서 “성실신고 기준과 세무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년 반복되는 성실신고 권장

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첫 번째 타이틀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입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숨은 세원발굴을 위해 적격증빙 관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적격증빙 수칙 여부를 즉시 분석, 허위증빙을 이용한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정하여 사후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취지이고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여기에 속하고 관리대상입니다. 사후검증결과 탈루혐의가 구체적이고 광범위하여 즉시 조사하지 않으면 조사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성실신고혐의가 크지 아니하면서 법령 적용 오류 등으로 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안내를 하여 불성실신고를 시정한다는 내용을 홍보하여 사전에 성실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2013년도 국세청 홍보자료임)

2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성실신고 기준

지난 가을호에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성실신고, 100% 완전한 성실신고가 최선이고 그렇게 신고함으로써 편만한 납세가 이루어 질 수 있겠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상대적인 성실신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상대적 성실신고기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요즘은 언론 보도에서도 자주 등장하지만 분위기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음성세원 발굴, 세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가 강화되었고 세무조사의 강

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의 탈루자에 대하여는 신고 누락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함은 물론 세금부과와는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국세청의 내부기준에 의하면 매 1년 단위의 탈루소득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기준의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로 검찰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국세청에서도 바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민족을 침략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꼴이 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민족을 위하는 길, 애족이었으므로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고 탈세를 하여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회비의 성격으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고 어느 한 사람이 적게 낸 세금은 다른 어떤 사람이 부담하여야 사회(국가)가 유지되므로 탈세한 사람을 응징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탈세사실을 고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투명한 사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인 성실신고 기준도 매우 높아지고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신고 · 납부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시스템 소개

가. 전산분석에 의한 정기조사대상자 선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①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

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도 분석 항목으로는 외형 신장율, 신고소득율, 신용카드 발행 및 수취비율, 가사 경비사용여부 등 수 백 개의 항목이 있으며 이들 항목을 동일 업종, 같은 규모의 사업자와 서로 비교 분석 하여 성실도 분석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작성된 성실도분석표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5년 이내에는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또한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당해 연도 1년 치만 세무조사를 받게 됨으로 조사강도도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수동분석에 의한 비정기(수시)조사대상자 선정

국세기본법 제8조의 6 제2항에는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①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다거나 과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 조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비정기조사대상자 선정 시 분석하는 항목들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지출연계분석시스템(국세청 내부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용어는 아님)입니다. 즉 신고소득대비 재산증식이나 소비지출이 과도한 경우 신고소득의 누락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3년 ~ 5년간의 신고 소득금액은 2억원 정도 인데 반해 부동산 취득금액과 가사비용(해외여행경비 등 과세자료로 노출되는 경비 포함)등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그 금액의 차이가 큰 사업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겠지만 언젠가는 한번쯤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취득이 많고 해외여행이 빈번하다거나 가사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높여서 세금도 더 많이 납부해 두어야 세무조사를 피해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적격증빙 미수취금액이 과다한 경우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가공경비를 넣어서 신고소득금액을 줄인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총 수입금액이 완전히 노출되는 병과인 경우 경비영수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소득율을 높여서 신고하면 그냥 넘어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경비항목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제비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아야 하고 급여(일용직포함)에 대하여는 4대 보험금을 부담하고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비 항목이 모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만 경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에 표기된 이러한 경비항목들의 합계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수취금액의 연간합계액을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 금액이 클 경우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세행정 일선에서는 이러한 분석방법을 최근 2~3년 전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 의거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반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검토해서 신고에 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비정기세무조사는 조사대상연도를 통상 3년 이상으로 하고 조사강도도 매우 높게 진행되며 추징되는 세금의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물게 된다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세금이 추징될 경우 가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고불성실(과소신고 포함) 가산세가 40%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년 3천(10,000분의 3)으로 연리 10.95% 이므로 신고 누락한 세금에 최소한 50%이상의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많은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방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성실신고, 100% 완전한 성실신고가 최선이고 그렇게 신고함으로써 편안한 납세가 이루어 질 수 있겠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상대적인 성실신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무어라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 업무 진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비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올해 신고하는 2012년도 귀속분은 2016년이나 2017년도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세정이 차츰 더 투명해지고 탈세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인식 또한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전 사업자가 다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비교 분석하여 성실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불성실한 사업지만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 경북지역의 납세자가 타 지역의 납세자에 비하여 신고소득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매우 어렵고 좋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의 영세병원은 세무조사 걱정보다도 당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각 사업자별 담당 세무대리인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각 항목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성실 신고함으로써 세무조사만은 피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올해로 팔순이십니다. 1933년생이시고 경주 안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녀 교육에 열의가 대단하신 할아버지께서 1935년 대구사범학교(지금 사대부고) 서편에 있는 봉산동에 입 구(口)자 집을 사서 이사를 오셨고 아버지는 대구 덕산초등학교(현 대구초등학교)에 다니셨습니다. 덕산초등학교에서 급장(요즈음의 반장)을 놓친 적이 없었는데, 급장을 하면서 할아버지와 고모님이 급장을 잘 하도록 차렷, 경례하는 것을 집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막내로 태어난 아버지가 얼마나 부모님과 형님 누나들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자랐는지 짐작이 갑니다. 덕산 초등학교를 4학년 정도 까지 다니신 아버지는 고향인 안강으로 가서 안강제일초등학교에 다니셨다고 합니다. 일제 말엽 공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제의 도시사람 시골 소개령으로 인한 사정이었지요.

그 후 6년제의 첫 시작인 경북중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문과에서는 김철수교수님(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년퇴임, 수필가 전혜린의 부군)이 이과에서는 아버지께서 제일 성적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을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경북중학교 졸업후 6.25동란의 어수선하던 상황속에서 경북의과대학에 입학하시어 1958년 경북의과대학을 졸업 하셨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춘천 근처에서 군의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기억은 또렷하지 않지만 어릴 때 찍었던 여러장의 빛바랜 사진을 보면 그때의 춘천 생활이 어렴풋이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동덕 초등학교 다닐때 집은 경북대학병원과 동덕초등학교 근처 대구 삼덕동에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경북의과대학에서 산부인과 전공의 과정을 하셨습니다. 전공의 과정후 산부인과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실 때 지금은 한옥이던 삼덕동 집 작은방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벽면이 아버지의 등에 때가 타서 새까맣게 변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전문의 공부하시면서 가끔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겨울에 집과 대문 사이가 긴 마당 오른편 절반 정도에 밤에 물을 부어 빙판을 만들고, 우리 형제들이 그곳에서 썰매를 타며 재미있게 놀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함께 외출을 나가면 시내 맘모스제과점에 가서 빵도 사주시고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아마 그것이 전문의 공부에 지친 아버지 나름의 휴식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어릴때 아버지께 여러번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가위를 들고 동생영당이 밑에 대고 있다가 앉으면 콧 툇 떨어져 아프게 하려고 장난을 치다가 들킨것입니다. 자칫하면 항문주위가 찢어져 열상을 입는 아주 위험한 놀이입니다. 정말 아찔합니다.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그냥 콧 툇 떨어져 잠깐 아프게 하려는, 요즘의 똥침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형님이 설사를 심하게 해서 아버지가 병원에서 링거를 가져 오셨는데, 내가 그만 주사기의 캡을 빼버리고 방바닥에 지이익 그어 버렸습니다. 주사 바늘을 방바닥에



홍성철 원장
홍성철성형외과의원(포항)

젊은 사람들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세상에
연세 팔십에 직장에 다닌다는 것이 요즘의 아버지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은 대단히 건강하시니까요.

완전히 오염시켜 버려서 주사를 놓을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또 한 번 혼났습니다. 그때는 주사 바늘도 망가지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라고 가법계 생각했는데 의사가 된 지금 그 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한심합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사주셨습니다. 처음에 자전거 타는 방법을 몰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다가 어느 순간 요령을 터득하고 온 천지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차도로 뛰어 들었다가 아버지한테 들켜서 나중에 또 꾸중을 들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에서 무한 질주하는 것을 보고 혼내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으랴. 이런 부모의 보살핌 하에서 다치지 않고 큰 흉터 없이 살아온 것을 보면 이보다 큰 다행이 없는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경북대학교 병리학교실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개업을 하셨는데 대구시 의사회 감사와 북구 의사회 회장(1985년 제2대 회장)을 하셨습니다. 회장 당시 집행부에서는 제1회 대구시 의사회 회원친선체육대회에서 동구·북구의사회가 단일팀으로 참가하여 종합우승으로 회원의 단합을 과시하는 한편, 대외봉사사업 및 회무홍보사업에 역점을 두고 회무를 추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수십년의 개원의 생활을 그만두시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도 직장을 구하기 힘든 세상에 연세 팔십에 직장에 다닌다는 것이 요즘의 아버지 자랑입니다. 주위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시고 좀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무릎이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연세에 출근을 하실수 있다는게 정신이나 육체적 건강상 집에서 소일하시는 것보다는 생활에 훨씬 활력을 줄 수 있다는게 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경북의대 58동기회(58년 경북의대 졸업하신 친한분들의 모임) 회원 중 벌써 여러분이 고인이 되셨고 몸이 불편하여

한 해 한 해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직 아무 염려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은 대단히 건강하시니까요.

요즘은 병원과 주택이 붙어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옛날에는 34층 건물 윗층에 주택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산부인과 특성상 밤에도 응급 환자가 벨을 누르면 아버지는 주무시다가도 일어나 뛰어 내려가곤 하셨으니까요. 지금도 나는 한밤중에 울리던 그 응급환자 벨소리가 들리는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한밤중에 아버지와 함께 잠을 깨어, 뚜벅뚜벅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를 지금도 잠결에 들곤 합니다.

정말 철두철미한 성격에 빈틈이 없는 아버지가 이제는 어디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 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면 원래 나이 들면 다 아픈거다, 하시며 가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와이셔츠도 칼 같이 다려서 입고 다니셨는데 이제는 자꾸 같은 옷만 입으시려는것을 보면서, 아버지도 이제 정말 연세가 드셨구나 하는 걸 나는 문득 문득 느낍니다.

어머니도 대퇴골 골절로 입원해 계시는데 하루 빨리 건강 회복하시어 두분께서 편한 여생을 보내시고 백년해로 까지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정도의 건강을 좀더 오랫동안 유지하셔서 지금 다니시는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근무하세요!!!

- PS
- 이 글은 의학박사이면서 한학에도 밝은 —菴 홍군 식박사의 일암문집(평소 쓰셨던 비문과 남양홍씨 家乘등이 담김 - 2012년 7월 발간) 제3부 “나의 아버지 일암”의 내용입니다.
 - 이제 아버지께서는 작년9월로 요양병원에서 퇴직하시고 탁암(일암의 부친)문고와 울수재 중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장횡거(張橫渠)의 지동설과 천체 인식

사고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대사건 혹은 변화를 흔히 ‘코페르니쿠스적 사건’ 혹은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라고들 한다.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회전하는 것이 신의 섭리라고 믿던 서구 사회에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은 기독교적 세계관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주장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한 학자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입을 다물었거나,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면서 발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겠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한 때가 1543년이다. 이보다 약 500년이 앞선 시기에 중국에서는 “땅이 돈다.”고 주장한 학자가 있었다. 송나라의 기철학자 장횡거(張橫渠, 1020년~1077년, 본명은 장재(張載))다. 자신의 기일원론 철학 체계와 당시 관측된 천체 현상을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 장횡거의 “땅이 돈다.”는 학설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의 학자 홍대용도 이미 소개한 바가 있다. 홍대용은 이미 서구의 천문학 이론을 접한 상태였기 때문에 장횡거의 이론을 가볍게 평가해, 장횡거가 “땅이 돈다는 것에 대해 조금 밝힌 바가 있다.”고 했다. 송대 신유학의 초기 학자로서 기일원론을 주장했던 장횡거는 “땅이 돈다.”는 주장 외에도 항성과 태양, 달, 행성들의 운행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이론은 지금의 천문학적 이론으로 봐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이제 장횡거의 “땅이 돈다.”는 학설에 대해 알아보자.

장횡거는 자신의 저작 정몽(正蒙) 삼량(參兩)편에서

地在氣中 雖順天左旋 其所系辰象隨之 稍遲則反移徙而右爾 間有緩速不齊者 七政之性殊也

라고 하였는데 해석하면 “땅은 기 가운데 있어서 비록 하늘을 따라 좌측으로 돌지만, 그에 매인 별들(앞 내용의 글을 볼 때 해, 달, 및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다섯 행성)은 땅을 따라 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느려서 오른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 느리고 빠른 차이가 있어 같지 않은 것은 일곱 천체의 성질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뜻이 된다.



김종규 과장
안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왼쪽으로, 여기서 왼쪽으로라는 표현은 북반구에서 관측한 결과인데 이하 좌우는 모두 이를 전제로 한다.) 자전한다. 이에 따라 모든 천체가 매일 동에서 서로(오른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일

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의 천체 내 위치(황도)는 1년에 한 바퀴씩(하루 1도 조금 덜 되는 각도로) 서에서 동으로(좌측으로) 이동한다. 실제 태양은 천체 위치 내에서 왼쪽으로(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지만 매우 느리기 때문에 매일 보는 태양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오른쪽으로(동에서 서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 장황거의 이론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달도 마찬가지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서에서 동으로(좌측으로) 약 한 달에 한 바퀴의 속도로 천체 내 위치(백도)가 이동하지만 역시 매일 보는 달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오른쪽으로(동에서 서로) 하루 한 바퀴 조금 덜 되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땅이 하늘을 따라 좌측으로 돈다는 아이디어다. 일종의 지동설이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동양은 서양 천문학을 접하기 전에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고 해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땅이 돌 수 있을까? 고대의 개념인 땅을 하늘이 반원 형태로 덮고 있는 개천(蓋天)의 개념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고대인들이 천체를 관측하면서 별자리가 계절에 따라 지평선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기도 하는 모습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평선 아래로 하늘이 연장되어 있다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 한나라 시기에는 벌써 하늘이 땅을 구형으로 싸고 있다는 혼천(渾天) 개념이 생겼다. 이를 모델로 한 것이 혼천의(渾天儀)다. 물론 장황거의 시대에는 땅이 평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땅이 돈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공 모양의 땅이 도는 것이 아니라 혼천을 따라 평면 모양의 땅이 돈다고 봤을 것이다. 이런 장황거의 이론은 보통 지동설이라고 부르기보다 좌선설(左旋說)이라고 하는데 제목에서는 알기 쉬운 지동설로 표현했다. 그리고 장황거의 좌선설은 현대 천문학적 입장이 아니라 기일원론 체계 속에서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배치되는 지동설이 기독교 세계의 근본을 흔드는 반역적 사고였지만 기의 취산(聚散)에 의해 세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장황거의 입장에서는 양의 기가 떠올라 형성된 하늘을 중심으로 음의 기가 모인 땅이 도는 것은 논리체계에 부합하는 자연스런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의 지동설(좌선설)을 조금 더 보충하는 말들을 그 뒤의

몇 구절에서 찾아본다.

古今謂天左旋 此直至粗之論爾 不考日月出沒恒星昏曉之變 愚謂在天而運者 唯七曜而已 恒星所以爲晝夜者 直以地氣乘機左旋於中 故使恒星河漢因北爲南 日月因天隱見

“고금을 통해 사람들이 하늘이 왼쪽으로 돈다고 말하는 데 이것은 조잡한 이론으로,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과 항성이 저녁과 새벽으로 변하는 것을 살피지 못한 까닭이다. 내 생각에는 하늘에 있으면서 움직이는 것은 일곱 가지(해, 달, 다섯 행성) 뿐이다. 항성이 밤과 낮으로 (뜨고 지는) 것은 바로 땅의 기가 기틀에 의해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항성과 은하수가 북에서 남으로 옮겨가고 해와 달은 하늘을 따라 뜨고 지는 것이다.” 라고 하여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이 왼쪽으로(서에서 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천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한다. 여기서 북에서 남으로의 이동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로 인해 동서로만이 아니라 천체의 고도도 변하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하늘에서 움직이는 것은 태양, 달, 다섯 행성만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하늘의 회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문구도 보인다. 뒤에

天左旋 處其中者順之 少遲則反右矣

라는 구절이 있는데 “하늘은 왼쪽으로 돌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도 따라 돌지만 약간 느리기 때문에 도리어 오른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여 하늘의 움직임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땅이 왼쪽으로(서에서 동으로) 회전(자전)하기 때문에 하늘이 오른쪽으로(동에서 서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했다. 문맥으로 보면 여기서 천(天)은 하늘 자체보다는 하늘에 매인 해, 달, 다섯 행성의 일곱 천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 지동설(좌선설) 외에도 장황거의 표현 중에는 당시 천문관측을 짐작할 수 있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다. 위 문장 바로 앞에는 다섯 행성에 관한 내용이 있다.

恒星不動 純系乎天 與浮陽運旋而不窮者也 日月五星逆天而行 兼包乎地者也

라고 하였는데 해석하면 “항성은 움직이지 않고 하늘에 매여서 떠오른 양기(하늘)와 더불어 끊임없이 운행하며 돈다. 해와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다섯 행성은 하늘을 거슬러 운행하는데 땅에 잡힌 존재다.” 과거 천체를 관측하던 사람들에게 일정한 상대적 위치를 유지하는 항성에 반해 해와 달과 같이 매일 천체 속에서 위치를 달리하는 존재와, 천체 사이에서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며 돌아다니던 다섯 별들은 신기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들은 이 다섯 별들을 돌아다니는 별이란 뜻으로 행성이라 불렀다. 물론 이 별들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항성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천왕성이나 해왕성과 같은 행성은 육안으로 관측되지 않아 당시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별들이었다. 해와 달과 행성들이 땅에 잡혀있기 때문에 항성들과 달리 하늘을 거슬러 운행한다는 표현이 재미있다. 일단 지구와 가장 가깝게 있는 별들인 것은 사실이잖은가?

위에 처음 제시된 문장 다음에는 해와 달의 운행에 대한 언급도 있다.

月陰精 反乎陽者也 故其右行最速 日爲陽精 然其質本陰 故其右行雖緩 亦不純系乎天 如恒星不動

라고 하였는데 해석하면 “달은 음의 정기로서 양의 반대가 되니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가장 빠르다. 해는 양의 정기라고 하나 본래의 성질은 음인 까닭에 오른쪽으로 도는 성질은 비록 느리지만 움직이지 않는 항성처럼 하늘에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 개인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우(右)는 좌(左)의 오기이거나 저자의 착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해와 달이 왼쪽으로 돌지만 땅이 왼쪽으로 도는 속도가 더 빨라 오른쪽으로 도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른쪽(서쪽)으로 도는 일주 운동을 보더라도 달이 해보다 일주운동의 속도가 늦어 보인다(매일 50분 정도 늦게 달이 뜬다.). 반면 달이 지구를 따라 도는 공전은 한 달에 한 번의 빠른 속도로 백도를 따라 항성 사이를 왼쪽으로(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태양이 황도를 따라 왼쪽으로(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속도는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린다. 왼쪽(동쪽)으로 도는 속도는 백

도를 따라 도는 달이 황도를 따라 도는 해보다 빠르다는 이야기다.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오기나 저자의 착각이 아니라면 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떠있지만 달은 초승달 같이 금방 지는 현상을 설명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어서 다섯 행성의 운행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金水附日前後進退而行者 其理精深 存乎物感可知矣

먼저 금성과 수성에 대해 언급한다. “금성과 수성은 해의 앞뒤에 붙어 나아가고 물러가는 별들이다. 그 이치가 심오하니 사물이 서로 감응함을 알 수 있다.” 금성과 수성은 지구보다 안쪽에서 태양을 돌고 있는 내행성들이다.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태양과 일정한 각도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수성의 경우 지구에서 볼 때 태양과 이루는 각도가 최대 28도, 금성의 경우 최대 48도 이상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별은 해뜨기 직전의 새벽이나 해가 진 직후의 초저녁에만 관찰이 가능하다. 이런 현상을 기철학자답게 태양과 내행성의 관계를 감응으로 파악한 것이다.

鎮星地類 然根本五行 雖其行最緩 亦不純系乎地也

토성에 대해서는 “토성은 땅의 무리이나 근본은 오행에 두고 있으며 비록 그 운행이 가장 느리지만 땅에만 매여 있지 않다.”고 했다. 다섯 행성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공전주기가 약 29.5년이다. 항성들 사이를 궤도를 따라 한 바퀴 도는데 30년 가까운 세월이 걸리는 것을 관측한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참고로 토성, 목성, 화성과 같은 외행성들은 지구의 공전궤도와 이루는 각인 황도경사각이 3도 이내로 대개 천체 사이를 태양이 1년에 걸쳐 움직이는 황도 근처의 별들을 지나간다.

火者亦陰質, 爲陽萃焉, 然其氣比日而微, 故其遲倍日.

화성은 그 이름으로 인해 양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기 쉽다. 그렇지만 장황거는 “화성의 실질은 음이다. 양이 모여 된 것이라고 하나 그 기는 해에 비해 미약하니 태양에 비해 배나 느리다.”고 하여 태양에 비해 양의 기가 매우 약하므로 태양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화성은 공전주기가 약 2년으로 천체 사이의 궤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해가 황도를 따라 한 바퀴 도는

장황거의 지동설을 비롯한 천체에 관한 인식은 현대 천문학처럼 실증적 증거에 입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측된 자료와 자연현상을 자신의 기철학과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성립된 인식이다.

시간의 약 2배가 된다. 그래서 해에 비해 두 배나 느리다고 한 것으로 이 역시 천체 관측을 근거로 한 것이다.

惟木乃歲一盛衰, 故歲歷一辰 辰者日月一交之次 有歲之象也

“목성은 1년에 한 번 성하고 쇠하니 한 해에 한 별자리씩 옮겨간다. 별자리란 해와 달이 한번 바뀌는 차례이니 해마다 있는 현상이다.”라는 뜻이다. 목성은 공전 주기가 약 12년이다. 그래서 한 해에 한 별자리씩 즉 천구의 약 12분의 1 정도를 옮겨간다. 그래서 한 해에 한 별자리씩 옮겨간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지구는 1년에 한 번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게 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목성이 같은 방향인 계절에는 지구와 목성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밝고 밤새 관찰이 가능하다. 반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목성이 반대 방향에 있는 계절에는 지구와 목성과의 거리가 더 길어져 어둡게 보이고, 관측도 불가능하거나 해뜨기 직전이나 해가 진 직후에만 관측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1년에 한 번 성하고 쇠한다고 한 것이다. 한편 辰者日月一交之次 즉 ‘해와 달이 한번 바뀌는 차례’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달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천구의 백도를 따라 이동한다. 이 백도는 태양이 천구의 황도와 약 5도 정도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별자리를 지나간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황도를 따라 이동하는 태양을 한 달에 한 번은 따라잡아 만나게 되어있는데 다음 따라잡을 때까지 태양이 황도상에 이동한 거리를 진(辰)이라고 한다는 의미다.

그는 조석간만의 차, 일식과 월식, 달의 모양의 변화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설명을 한다.

至於一晝夜之盈虛昇降 則以海水潮汐驗之爲信 然間有小大之差 則系日月朔望, 其精相感

“하루 밤낮의 차고 비며,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이르르면 곧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되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그사이에도 대소간의 차이(사리와 조금)의 차이가 있으니 해와

달의 삭망(그믐과 보름달)의 정기가 서로 감응하는 것이다.” 달이 머리 위에 있을 때나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는 밀물이 되고, 달이 지평선 혹은 수평선 근처에 있을 때 썰물이 된다. 또 보름달이나 그믐이나 초하루에는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사리가 되고 상현이나 하현일 때 조석간만의 차가 작아져 조금이 된다. 이런 관측의 결과를 해와 달의 정기가 서로 감응한 것으로 본 것은 현대과학과 일치하는 설명이다.

日質本陰 月質本陽 故於朔望之際 精魄反交 則光爲之蝕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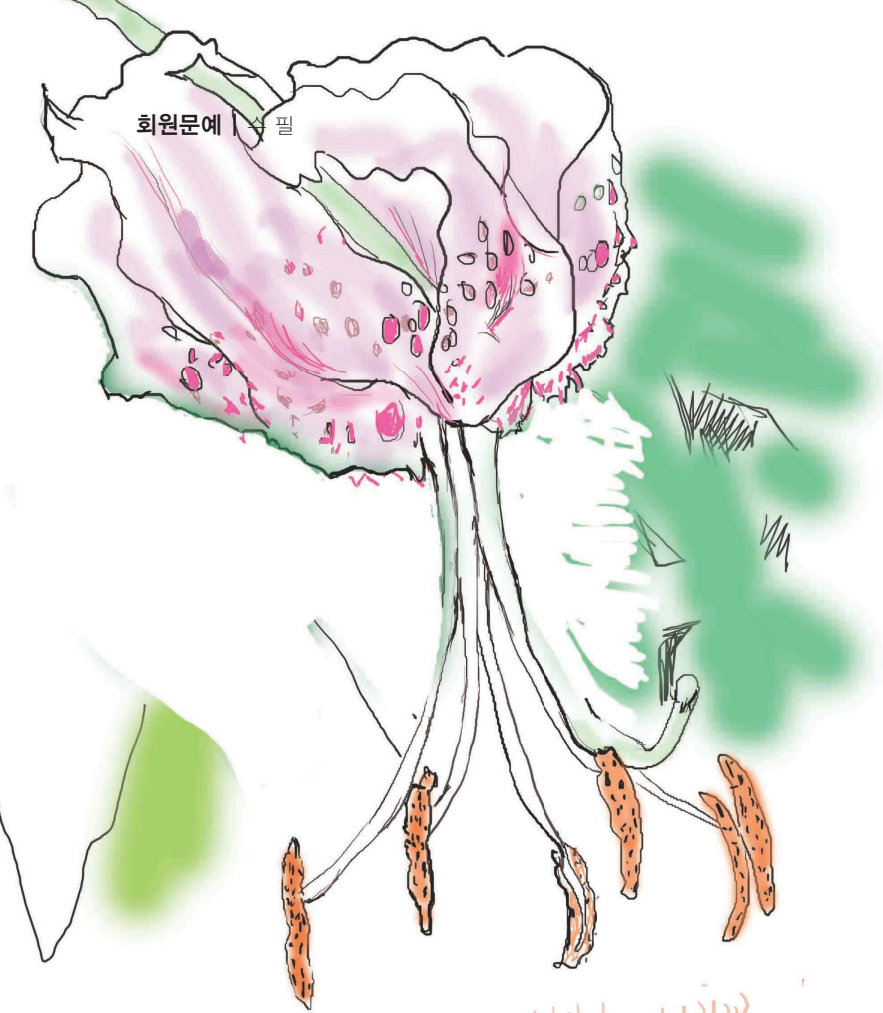
“해의 실질은 음에 바탕을 두고 있고, 달의 실질은 양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초하루와 보름에 정(해)과 백(달)이 어긋나게 되면 광채가 없어서 일식과 월식이 일어난다.”

虧盈法 月於人爲近 日遠在外 故月受日光常在於外 人視其終初如鉤之曲 及其中天也如半璧然 此虧盈之驗也

“(달이) 이지러지고 차는 이치를 설명하자면, 달은 사람과 가깝고 해는 멀리 바깥에 있으므로 달은 항상 바깥에 있는 해의 빛을 받는다. 사람은 마지막(그믐쭈)과 처음(초승쭈)에는 갈고리의 굽은 것 같은 것을 보고(그믐달, 초승달), 하늘 가운데 이르면 반쪽의 구슬과 같은 것을 보니(상현달, 하현달) 이것이 이지러지고 차는 증거이다.

태양과 달과 지구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확한 관찰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기철학과 자연현상을 연결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장황거의 지동설을 비롯한 천체에 관한 인식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낮은 수준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그때까지 축적된 관측 결과들을 하나의 통일된 논리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이 외에도 세계를 기원론으로 설명하였는데 오늘날의 ‘질량-에너지 불변의 법칙’과 상당히 유사한 논리로 설명했다. 천 년 전 그는 철학자면서 과학자였다.



삶의 향기

선암사 내리꽃
2011년 5월 7일
Limjo

모든 것에는 향기가 있다.

5월 도시의 각진 건물 사이틈 어디선가 불어오는 꽃향기에 기분이 설레인다.

내가 사는 도시의 어느 골목을 건다가 그 골목안 담 너머 라일락나무에서 풍기는
꽃향기를 맡아보니 문득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팍팍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어느 순간에

옛 냄새가 그리워지는 때가 있다.

그 향기와 오래된 냄새를 생각하면서 추억을 생각해 내고

아련한 과거로 돌아간다.



임종식 부장
영천성모병원 내과

어쩌다 이른 아침에 등교를 했을때,

초등학교 교실창문을 열면 그 아침에 창문을 타고 들어오던

신록의 푸른 향기가 교실로 사뿐이 들어왔고,

체육시간을 마친 뒤 사내아이들의 땀 냄새로 가득 찬 고등학교 교실이며,

일요일 한적한 교실복도로 걸었을 때의 나무복도의 냄새,

아니면 학교 앞 분식집의 라면 (떡용포장 하얀 비닐에 싸영든)끓이던 냄새조차도
그렇기도 하다.



대양
 머쉬니 뜨게질서 6월초
 옛날식 담배부스 가지고 드르륵 여말이분이 좋은거~
 더워서 팔방사 사먹으로 가던길에~~

고등학교 시절 아침 등굣길에 좁은 골목길을 걸어서 갔을때 인것 같다.

골목에서는 만리향 꽃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고, 그 위로 초여름의 아침 햇살이

내리 쪼일때 어디선가 들렸었던 이글스의 'Hotel California'의 노래소리는

삶의 향기가 되어서

수십년이 지난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어두운 독서실 한켠에서 풍기는 쿨쿨한 건물냄새는

살아가면서 힘들때 묘하게 세상을 견뎌내는 힘이 되어 주었고,

여름밤 마당에서 담배연기처럼 어두운 밤하늘에 퍼지던 모깃불 풀 타는 냄새는

삶의 위안이 되어 주기도 했다.

어찌보면 냄새와 향기는 맡는 것이지만, 그 냄새가 주는 역할이나 의미는 오래동안

이미지의 형태로 기억이 되어 주는 듯하다.

요즘은 넓은 통유리로 된 외관에 안락한 소파가 있는

깨끗한 시설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운 향기,

갓 볶은 원두커피로 내린 커피전문점의 향기에 길들여져지만,

잊고 살았던, 지금은 흔히 맡아 보지 못하는 낡은 냄새들이 그립다.

어쩌면 그 시절의 그 냄새들(향기라고 표현하지 못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힘이 되어 주는 듯하다.

우리 또한 누구에겐가

소중한 향기처럼 남고 싶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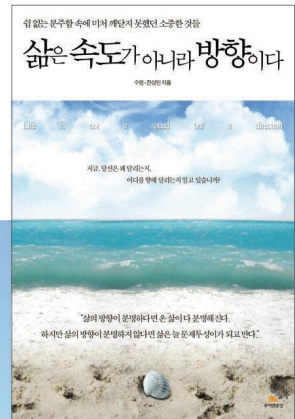
때로는 달콤한 향기로

아니면 갓 볶은 드림원두커피의 그윽한 향기로도...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수영, 전성민 지음
루이 앤 휴잇 도서출판



이 책은 우리 일상의 쉽 없는 분주함 속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점검해보자는 자기계발서이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며 방향만 확실하다면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지은이들 역시 아프리카 봉사 활동을 꿈꾸는 변호사이자 아프리카 빈민 구호 활동가이다.

저자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소설가 박완서가 40세에 등단했고, 프랑스의 가장 위대한 작가로 추앙받는 빅토르 위고 역시 60세에 역작 레미제라블을 탄생시켰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건 그들의 작품이지 그들이 언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았지만 한 방향을 향해 꾸준히 걸어갔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람의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교하면서 아직 전반전도 채 끝나지 않은 시간에 많은 이들은 벌써 좌절하기도 하지만 전반전 잔여시간과 후반 45분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실사 몇 골 먹었다고 해도 작전만 잘 세우면 충분히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고 이 책은 이야기한다.

삶이란 표지판 없는 낯선 길을 걷는 것과도 같아서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벽에 가로 막히기도 하고 장애물이 나타나 걸려 넘어지기도 하며 생각지도 못한 일로 상처받기도 한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시행착오를 겪

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일어나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지 삶에 쫓긴 나머지 제 페이스를 잃고 흔들리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제자리에 멈추게 되고 괴로워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우리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목표를 재점검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축적할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일을 잠시 중단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이것은 자포자기와는 다르다. 또한 이러한 장애물로 인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의 간절함을 점검할 수도 있는데 장애물 앞에 쉽게 포기한다면 이것은 추구하는 목표가 간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삶이 불안해지고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나 지금까지 무작정 앞만 보고 쉽없이 뛰어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명쾌한 지침이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대영 원장
김대영비뇨기과의원
(안동시의사회 홍보이사)





Mometasone
furoate

Azelastine
HCl



국소용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복합 개량신약

모테손® 플러스 나잘 스프레이

- 국소작용으로 빠른 효과
- Azelastine HCl의 쓴 맛 개선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NO.1!



부신피질호르몬제

피디^정

메틸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의 분량 1정 중

메틸프레드니솔론(U,S,P) 4mg

효능·효과

- 1.피부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박탈성 피부염,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지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균상식 육종
- 2.알레르기성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 3.교환성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 4.내분비 장애 5.류마티스성 장애
- 6.안과 질환 7.위장관계 질환 8.호흡기계 질환
- 9.혈액 질환 10.악성 종양성 질환 11.부종성 질환 12.신경계 질환 13.기타

보 함 코 드 A21950881

피디^정의 주성분인 **Methylprednisolone**은 기존 Prednisolone보다 **항염효과**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Mineralocorticoid의 작용이 약하므로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낮은 부신피질호르몬제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4 대동테크노타운 13차 3층 / TEL:02)2109-3300 • FAX:02)2109-3388



중외신약